제4회 온누리 선교 Consulting

1. 일정 : 2018년 11월 6일(화) 오전 10시 ~ 11월 7일(수) 오후 4시

2. 장소 : 제주 까사데비발디(서귀포시 안덕면 향교로 214, Tel. 064-794-8970)

3. 주제 : 온누리를 넘어서

4. Schedule

▶ 1일차(11월 6일)

	시간	RT	내용	담당	비고
이동	10:00AM	1:30	제주공항 도착-->서귀포 이동		
	11:30 AM	1:30	점심식사	진행팀	산방산 근처 식사
	1:00 PM	0:30	모임 장소 도착		
	1:30 PM	0:30	숙소 배정, 짐 풀기		
예배	2:00 PM	0:15	찬양	김세현 간사	박지현 간사
	2:15 PM	0:05	기도	이승배 장로	
	2:20 PM	0:20	**말씀**	이재훈 담임목사	
Session 1 협력선교 : 국제화	2:40 PM	0:05	환영, 소개와 진행	신헌승 장로	
	2:45 PM	0:25	글로벌 선교협력및 네트웍선교 필요성	정민영선교사	
	3:10 PM	0:30	온누리 선교방향	김홍주 목사	지속적인 전방개척 선교 및 협력선교 개발
	3:40 PM	0:40	테이블 토론	팀별 토론	
Session 2 현지화	4:20 PM	0:20	온누리선교 현지화를 위한 제언	한정국 선교사	현장리더십으로의 권한과 책임의 위임
	4:40 PM	0:30	선교와 거버넌스	성남용 목사	
	5:10 PM	0:20	현지인 사역자 개발과 사역의 위임	조문상 선교사	
	5:30 PM	0:40	테이블 토론	팀별 토론	
	6:10 PM	1:00	**저녁식사**	뷔페	
Session 3 선교사 재배치	7:10 PM	0:20	선교사 추방의 사례와 대처방안	도육환 목사	
	7:30 PM	0:40	선교사 재배치	넬슨 제닝스 박사	통역
	8:10 PM	0:20	중국교회에 부는 새로운 도전과 선교과제	렴문홍 목사	중국인 현지인 사역자 발굴, 훈련, 파송
Session 4	8:30 PM	0:40	토론	팀별 토론	
	9:10 PM	0:30	총평	이재훈 담임목사	
	9:40 PM	0:10	마무리 기도	이재훈 담임목사	광고(신헌승 장로)

▶ 2일차(11월 7일)

	시간	RT	내용	세부내용	비고
Session 5 선교센터 착공예배	7:00 AM	1:00	**아침식사**		Check out
	8:00 AM	0:10	찬양	김세현 간사	
	8:10 AM	0:10	QT 나눔	도육환 목사	
	8:20 AM	2:00	**자유 토론**	신헌승 장로	
Session 6 선교센터 착공예배	10:20 AM	0:40	드림교회 이동		
	11:00 AM	1:00	**온누리제주선교센터 착공예배**	이재훈 담임목사	이재정 목사, 김홍주 목사
	12:00 PM	2:00	점심 식사		
이동	2:00 PM	2:00	방문 1		행사 시간이 밀릴 것과 제주공항 접근의 복잡한 도로상황을 대비한 예비시간 확보
	4:00 PM	1:00	공항이동		
	5:00 PM		공항도착		

Ver.18.10.11

2018
온누리선교컨설팅

ONNURI·MISSION·CONSULTING

<글로벌 선교동역의 필요성>

- 정민영 선교사 -

글로벌 선교동역의 필요성

정민영 (초고: 2009 년 2 월, 보완개정: 2018 년 10 월)

들어가며

선교동역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동역은 성경적 원리에 부합한 핵심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일(선교행위)보다 더 본질적 개념은 우리의 정체성인데, 동역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초청받은 신앙공동체(교회)의 정체성과 긴밀히 결부돼 있다. 대위임령을 주시기 전, 주님은 먼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다(요한복음 17장). 따라서 동역을 거부한 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 선교는 반드시 동역의 형태로 진행되고 완성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선교의 남은 과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전략적 숙제가 세계교회의 협력이기 때문이다. 19세기말부터 본격화된 선교종결운동의 끝자락으로 여겨지는 21세기에 가장 자주 거론되는 화두는 단연 동역(partnership)이다. 이런 이슈로 공방을 치러야 할 만큼 선교의 현장에 협력이 희귀하고 독불장군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특히 그간 세계교회와 협력하고 대화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한국교계가 오랜 동면과 은둔에서 깨어나 동역에 앞장서는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

협력의 당위성

세계교회가 공동으로 위임받은 선교과업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협력의 당위성은 효율성에 우선되는 개념이다. 즉, “협력을 시도한다고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묻기 전에 “협력하지 않고 선교하는 게 옳은가?”라고 물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세계선교의 엄청난 과업을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기보다,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므로 선택의 여지없이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와 유사하다.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묘사한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는 각자 분리된 개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이고 유기적인 몸이다. 몸이란 지체들의 유기적 협력과 동역으로 세워지고 유지된다. 세계선교란 교회가 시행하는 외연적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우주적인 몸(the holy universal church)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갓 태어난 초대교회의 선교적 헌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주적인 몸을 완성하시려는 청사진을 제시하셨다. 몸의 성장(선교)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의 긴밀한 협력과 동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체들이 유기적인 연합관계를 잃을

때, 몸은 병들고 참된 성장은 중지된다. 따라서 세계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이 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몸'이란 표현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가르치는 비유다. 공동체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 즉 함께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한다는 뜻이다. '파트너'(partner)란 단어도 영불(Anglo-French) 계열의 parcene(공동 상속자, co-heir)란 법정용어에서 나온 개념으로 바울의 교회론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엡 3:6) 상호의존성은 공동체의 빼어난 특성이자 삼위하나님 공동체를 반영하는 핵심원리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팽배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신앙공동체로 역류하면서 교회마저 개별화되고 말았다. 세계교회를 신앙공동체로 이해하고 상호의존적 협력을 도모하기보다 피차를 경쟁상대로 오해하고 견제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이유다. 개별화된 배타적 지역교회는 이미 공동체가 아니며, 따라서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교회도 아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인 특성을 상실했다면, 그러한 교회를 통한 선교적 성취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개념을 상실하면서, 세계교회는 피차 세워주고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다른 지체들을 짓밟고 자기만 커지려는 세속적(신자유주의적) 경쟁구도로 치닫게 되었다. 선교의 방법론을 논하기 전에 선교를 감당할 만한 공동체의 자질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인 이유다. 개인주의적 경쟁구도로 진행되는 선교행위는 선교현장에 영적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퍼뜨리는 공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피선교지 입장에서 봐도, 세계교회가 피차 협력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선교행위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전도나 선교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결손된 개인들과 집단들을 '화해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한 몸의 지체들로 불러들이는 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토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교회가 정작 연합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외치는 '복음'은 자가당착적 소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대회(Lausanne II) 선언문은 선교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신빙성 회복을 위해 세계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이후 동역의 이슈는 다양한 세계선교 전략회의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수년 전 남미에서 만난 한 현지교회 지도자는 일부 한국 선교사들이 서로 헐뜯고 분열하는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도전했다: *"당신들이 전하는 기독교가 그토록 위대하다면 우리에게 그 우월성을 증명하라. 그간 남미를 지배해온 구교는 제도적 차원에서나마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보다 우월하다는 기독교를 포교하는 선교사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집안싸움이나 벌이고 있으니 누가 그런 종교로 개종하기 원하겠는가?"* 우리의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복음은 엄청난 평가절하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현상이 어디 남미뿐이겠는가?

협력의 효율성

선교를 위한 세계교회의 협력은 당위뿐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크다. 성경은 협력의 당위성과 아울러 효율성을 가르치고 있고(전 4:9-12), 세상의 학문도 뭉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승(相乘)역학을 이야기한다. 영적인 분야뿐 아니라 정신계와 물질계에 이르기까지 협력과 동역의 효율성이 임상적으로 입증되는 셈이다.

핵융합에 의한 엄청난 에너지 창출이 그렇고, 이른바 시너지(synergy) 효과나 집단상승효과(group dynamics)가 그렇다. 말 한 마리가 4톤 정도의 무게를 끌 수 있지만 두 마리가 힘을 합하면 무려 22톤을 끌 수 있고, 장작 하나는 화력이 약하고 금새 꺼지지만 몇 개만 모이면 엄청난 화력과 지구력을 발휘하며, 두 세 사람이 의견을 모으면(brainstorming)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 사람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개별적으로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얼룩말들이 모이면 굶주린 사자 떼를 물리칠 수 있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투 개념도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 은유다), 남해대교나 금문교같은 현수교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철골이나 굵은 강철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대하는 철사들이 뒤얽혀 엄청난 인장강도를 발휘한다는 사실 등 협력의 효율성을 입증할 만한 예화들은 수없이 많고 다양하다.

지난 이백여 년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분석하여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란 베스트 셀러를 집필한 스티븐 코비는 그들이 예외 없이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시너지 효과를 이용한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한다. 통합된 전체는 각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는 시너지 개념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산술적 개념으로는 풀 수 없는 유기체 역학인 것이다. 세계교회가 지상명령의 완수를 위해 하나로 뭉쳐 주께서 원래 의도하신대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영적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협력과 동역보다는 분열을 통해 성장하는 변형적 모습을 보였다고 교회성장학은 지적한다. 분열을 통해 교회가 쇠퇴하는 것보다 성장하는 편이 그래도 낫지 않으냐고 강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적 성장이 일어났다고 해서 협력 부재와 분열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열의 결과로 성장했다는 공식 자체에 문제가 있을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분열을 정당화할 성경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꿩 잡는 게 매'라는 주장은 세속적 가치이지 성경적 가치는 아니다. 교회는 연합의 내실을 위해 때때로 외형적 성장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분열과 성장을 상관관계로 묶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마치 세포분열을 통해 몸이 자라듯 한국교회는 분열이라는 독특한 모델을 통해 성장했고, 따라서 모로 갔어도 결과적으로 서울에 도착한 셈이니 계속 분열해도 괜찮다는 식의 궤변은 그쳐야 한다. 분

열이라는 악재(惡材)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 게 옳은 시각이며,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되었다면 만일 연합하고 협력해왔다면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얼마나 더 힘있게 확장되었을지 기회비용을 헤아리는 반성이 마땅한 청지기적 자세일 것이다.

역사의 교훈과 시행착오

한반도 개신교 선교시대를 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각각 장로교와 감리교 소속 선교사들이었다. 그들과 여러 선교사들은 서로 다른 신학과 소속에도 불구하고 피차 반목하거나 경쟁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지역을 분할하고 네비우스 선교원칙을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이나 소모전을 피하고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귀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초기 한국선교사들이 그러한 모범을 잘 따랐던 흔적이 보인다. 1909년 일본 동경의 한인 유학생 대상 선교사로 파송된 장로교의 한석진 목사는 그보다 먼저 동경에 가서 유학생 선교사역을 감당하던 감리교 김정식 선교사와 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사역을 벌이지 않고 무려 20년 간이나 동역한 미담을 남겼다. 오늘날 한국교계뿐 아니라 선교현장까지 확산된 배타적 경쟁과 대조되는 선배 선교사들의 귀감이다.

초대교회 선교는 한국 사역자들간 동역에 그치지 않고 현지교회와 글로벌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평양 대부흥 직후 중국 산동성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독자적 사역을 밀어부치지 않고 중국교회와 사전협의 및 조율을 통해 현지교회의 지도력 아래서 책무관계를 유지하며 사역했다. 해방 후 첫 파송을 받은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의 경우도 그랬다. 한국교회나 선교사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태국교회와 의논하여 사역의 성격과 지역을 결정하는 수순을 밟았고, 그 결과 본인이 원래 원했던 것과 다르게 태국교회가 요청하는 장소에서 현지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최찬영 선교사는 회고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선교가 본격화된 1970년대 이래 우리네 선교행위는 외형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드러내기 부끄러운 불협화음과 경쟁적 소모전이 많았다는 느낌이다. 한반도 교계가 대화와 협력을 통한 동반자적 사역을 도모하기보다 세상의 기준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지역에 교회를 난립시키고 교인 쟁탈전을 벌이듯, 선교현장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재현되면서 심지어 '선교 공해'라는 표현까지 종종 거론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협력 부재에 따른 공멸(共滅) 현상을 한 예로 생각해보자. 냉전이 종식되면서 오랜 세월 공산 이데올로기의 지배로 형성된 영적 진공상태를 복음으로 채울 절호의 기회를 맞은 구공산권의 한 지역에 한국 선교사들의 파송되었는데, 경쟁적 소모전 때문에 정작 사탄의 보루가 아닌 신앙공동체가 무너지는 유감스런 상황이 연출되었다. 중앙아시아의 한 고려

인 지역에 어느 교단 소속 선교사가 파송되어 현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후 다른 교단 소속 선교사가 같은 곳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급기야 교인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화목했던 고려인 사회가 '화해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분열되는 모순이 연출되자 사람들은 선교사들에게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한다.

넓고 할일 많은 일터를 두고 왜 굳이 다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남의 터'에 들어가려는 것인가? 타 집단 소속의 선교사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네 그릇된 풍토 때문이다. 한국교계에 협력과 동역의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다면 아예 그러한 중복투자를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교단이나 단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의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했더라면 그토록 부끄럽고 불미스러운 결말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서로 반목하며 경쟁하는 것은 마치 남의 집을 방문한 손님들끼리 주인댁 안방에서 소리지르며 싸우는 격이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주인이 취할 행동이 무엇일지는 자명하다. 선교사들간의 협력 부재가 사역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모처럼 새롭게 열린 선교의 기회를 아예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선교사들 및 선교단체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일 뿐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특히 공산권이나 회교권, 힌두권, 불교권 등 제한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교단이나 소속을 초월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동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협력의 분위기가 깨지고 독불장군들이 날뛰기 시작하면 오랜 세월 각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구축한 선교의 교두보와 기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 2007년 여름에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단기팀 피랍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필자가 오래 전 성경번역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의 파푸아(전 이리안자야)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선교단체들간의 긴밀한 동역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경험했고, 심지어 구교 사역자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파푸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개발이 안된 지역으로 여전히 정확한 언어와 인구 조사가 필요한 곳이다. 당시 선교부는 새머리(Bird's Head)라 불리는 서북지역을 새로운 개척지로 겨냥하고 있었고, 향후 선교사들을 투입하기 위한 사전탐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아무런 정보나 자료 없이 무작정 정글 속에 뛰어들 수는 없었기에 우리 탐사팀은 먼저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간단체는 물론 정부관청조차 우리가 원하는 지역정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한 관리는 탐사여행 후 자세한 정보를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새머리 지역의 쏘롱(Sorong)이란 도시에 며칠을 머물며 수소문하던 우리는 마침내 탐사대상지역 출신 몇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혀 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란 객관성이 결여된 단편적 정보뿐이었다. 그러던 중 오래 전 그 지역을 순회하며 사역한 적이 있다는 유럽출신 구교 신부들을 만나게 되었다. 선교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 백발이 된 그들은 우리의 말을 경청하더니 흔쾌히 모든 정보를 우리에

게 넘겨주었다. 거기에는 수십 년 전 그들이 정글을 구석구석 누비며 꼼꼼하게 그린 사제(私製)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 돌이켜 봐도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새머리 지역을 제대로 탐사할 수 있었을까 싶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기들이 애써 수집한 정보를 아낌없이 나눠주었을 뿐 아니라, 구교 선교부가 운영하는 경비행기까지 알선해주었다. 비록 소속은 다르지만 복음 사역자인 우리에게 도움이 된 사실을 기뻐하던 그들의 넉넉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물론 여러 개신교 선교단체와 선교사들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리가정이 참여한 모스꼬나 성경번역 사역도 TEAM 선교단체 소속 미국 선교사 가정이 1970년대에 그곳에 먼저 들어가 교회개척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던 중 부족어 성경의 필요를 절감하고 우리를 초청함으로써 성사된 동역사례였다. 파푸아에 도착한 지 얼마 안되어 남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다. 당시 선교부 입장에서 남부지역까지 사역을 확장할만한 여력이 없던 상황이어서 결국 내 꿈은 무산되고 말았지만, 그 지역에 관심을 품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로부터 큰 도움과 격려를 받게 되었다. 특히 '화해의 아이'(Peace Child)의 저자 돈 리차드슨이 사역했던 사위(Sawi) 부족과 인접한 까야가르(Kayagar) 부족이 한동안 내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리차드슨 선교사와 소속 선교회(RBMU)는 우리에게 그들의 시설과 인프라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배려해주었다.

협력의 원칙과 영역

협력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동역이 이뤄지기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특히 교리적 입장이나 사역적 원칙 및 규정이 상이한 기관들 사이에서 협력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인내와 대화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렵다는 핑계로 직무유기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수년 전 미국세계선교센타(USCWM, 현 Frontier Ventures)의 격월간 선교지 'Mission Frontiers'는 현재 세계선교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협력의 부재로 분석하면서, 범세계적이고 초교파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남은 과업의 성취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든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한 조직으로 뭉쳐 일사불란한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선교사역의 다양성을 생각할 때, 다양한 선교공동체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다. 최근 들어 협력 및 동반자(partnership) 선교를 지향하는 전문단체들과 네트워크가 부쩍 활성화되고, 동역의 이론과 실제 및 사례들을 다루는 책자들이 많이 출간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과거의 GCOWE (Glob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GCR (Great Commission Roundtable), AD2000 & Beyond를 비롯해서 로잔운동, 세계복음주의연맹(WEA), FTT (Finishing the Task)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합운동을 통해 정석화되고 있는 협력의 원칙과 영역에 대해 생각해보고 바람직한 동역의 방향을 제

안하고자 한다.

1. 왕국적 연대 (Kingdom Partnership)

성경적 동역은 하나님나라를 함께 세운다는 공동목표를 전제한다. 단체나 지역교회 또는 교단이라는 지엽적 울타리를 뛰어넘어 하나님나라의 거시관점으로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내나 선교현장에서 왕국적 연대가 좀처럼 성사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많은 이들이 편협하고 배타적인 미시관점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형적 선교행위에 앞서 왕국적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고, 그 결과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회복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왕국적 연대는 과업(task)중심 연대보다 크고 총체적인 개념이다. 특정 단체나 개인의 과업을 위해 남을 이용하거나 참여시키는 것은 과업중심 연대다. 각 단체나 개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에 충성해야 하지만, 그 모든 과업들의 총화인 하나님나라를 배제하는 모순을 낳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왕국적 연대를 위해서는 각 사역자나 단체가 자기의 독특한 과업보다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타적으로 연합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파이 전체의 크기를 함께 키움으로써 궁극적으로 각자에게 할당될 조각의 크기도 커지게 하는 윈윈(win-win) 전략인 셈이다. 왕국적 연대는 모두가 이기는 비결이다. 거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오직 하나님나라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뿐이다.

왕국적 연대가 이뤄지려면 모든 참여자들이 순수한 동기로 뭉쳐야 하고, 피차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교회의 하나됨(요한복음 17장)이 지상명령의 전제조건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상명령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빨리' 완수하는 것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과업중심 연대에서는 과업이 협력보다 중요하지만, 왕국적 연대에서는 협력을 포함한 공동체 가치가 더 중요한 우선순위다. 경영학과 마케팅 이론에 물든 현대교회는 이윤(계량적 결과)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크지만, 왕국적 연대는 결과보다 과정 및 동역의 질을 중시한다. 세속기업의 성공은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통제력에 좌우되지만, 왕국적 연대의 참여자들에게는 통제권이 없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방법(연합과 동역)으로 수행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결실하라는 확신이 왕국적 연대의 전제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라는 믿음(고전 3:6)이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방법으로 감당하면 그분의 신비로운 공급이 지속되리라는 '믿음선교'(faith mission)의 원리가 그렇다.

2. 정보, 전문성 및 자원의 공유 (outsourcing)

건강한 동역을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 및 단체들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적인 정보와 기술, 유형/무형 자원들이 공유되어야 한다. 선교단체가 굳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선교적 전문성 때문일 것이다.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서로의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교회의 선교적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선교연구원(KRIM)같은 단체는 정보가 수집되고 공유될 수 있는 장(場)이고, 다양한 선교훈련원들은 훈련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교단과 파송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유형/무형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아직 한국교회의 선교적 열기에 비해 태부족인 정보 및 훈련 기능을 생각할 때 더 많은 전문기관들이 생겨나기도 해야 하겠지만, 모든 교단과 선교단체가 각각 정보 및 훈련 기능을 갖추려 하기보다는 가용한 기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피하고 선교행위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각 기관이나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선교전략의 공감대 형성 (consultation)

전문성을 확보한 선교공동체들이 힘을 합해 감당해주어야 할 또 하나의 주요 역할은 건강한 선교전략을 함께 구축하고 공유하는 일이다. 세계선교의 현장은 아직도 불협화음이 많고, 특히 한국선교는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천 년 교회사와 이백 년 개신교 선교역사의 시행착오로 충분하고, 이제는 선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그릇된 본은 버리고 긍정적인 면을 더욱 발전시켜 남은 과업의 효과적인 완수에 공헌해야 할 때다.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선교적 독불장군들을 향하여 선교공동체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교통정리를 해주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책임을 감당키 위해서는 선교역사를 통해 축적된 경험적 노하우의 활용뿐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선교신학적 정지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신학과 선교학은 상호보완적 공생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선교학은 원리보다 경험주의로 흘렀고, 신학은 실천과 유리된 채 사변적 학문으로 치달아 피차 대안 없는 평행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신학과 선교학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상호보완을 통해 더 완전해질 수 있다. 수년 전 북미주 복음주의선교학회(EMS) 서부지구 모임은 '신학, 선교학, 사회학: 공존인가 상극인가?'라는 주제로 모였는데, 프론티어선교회 지도자 릭 러브는 선교학과 신학의 해묵은 냉전을 종식시키고 선교학적 신학자들(missiological theologians)과 신학적 선교학자들(theological missiologists)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한국의 신학계와 선교학계가 자리를 같이 하고, 실천가와 학자가 머리를 맞대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나 2017년 다시 발생한 파키스탄 사태와 같은 주요사건들에 대한 신학적, 선교학적 평가와 고찰이 아쉽다. 지난 십여 년간 방콕포럼과 설악포럼을 필두로 선교현장과 국내에서 시작된 다양한 포럼들이 새로운 대화와 협력

의 장으로 부상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4.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동역 (synergistic collaboration)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간의 상호보완적 동역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은 개신교 선교가 태동되던 상황과 뒤이은 역사적 관행에 기인한다. 18세기말 윌리엄 캐리를 필두로 개신교 선교가 태동되던 당시 대부분의 유럽교회들은 선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단체들이 조직되어 선교운동의 불을 지펴야 했다. 그 뒤를 이은 북미주 선교운동도 같은 이유로 지역교회보다 선교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서구선교의 관성이 한국선교에 영향을 미친 셈인데, 이제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선교적 자리매김과 바람직한 동역이 최근 선교계의 주요화두가 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이며 선교는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church), 대위임령의 청지기인 교회가 수동적 참여의 한계를 뛰어넘어 능동적으로 책임을 감당하려는 노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탄생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경쟁적 소모전을 피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동역의 노하우 등이 최근 주목받는 주제들이다.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한때 북미주 지역교회의 건강한 선교를 촉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ACMC는 지역교회 선교참여 형태에 세 가지 유형의 있다고 분류하면서, 1) 만사를 선교단체에 떠맡긴 채 재정지원만 하는 수동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2) 반대로 파송단체의 역할을 지역교회(특히 대형교회)가 대신하려는 시도의 위험과 비효율을 거론한 후, 3) 전략적 동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역유형(synergistic paradigm)을 바람직한 해답으로 제시한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피차를 경쟁상대가 아닌 상호보완적 동역자로 인식하고 적절한 업무분담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동역체제에서 선교단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지역교회의 효율적 선교행위를 촉진하고(facilitating) 네트워킹(networking)하는 일이라고 ACMC는 주장한다. 하나님의 선교에 지역교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선교단체는 지역교회로 하여금 효과적 선교사역을 감당하도록 전문적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공급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교단체는 지역교회의 사역을 위한 정보와 전략, 자원의 공급원(resource center) 역할을 해야 하고, 제반 선교행위 및 지도자 양성은 교회를 모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모델이라 생각한다. 주도권을 쟁탈하려는 경쟁구도가 아니라,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일체감을 가지고 사심 없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동역할 때 선교운동이 건강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5. 글로벌 선교운동에 동참 (Global mission by global church)

선교는 우주적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특성이다. 따라서 선교는 본질상 세계적이다. 선교란 배타적 패거리주의나 민족주의의 장벽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가

능한 일이며 필경 범세계적 선교운동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제2차 로잔대회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로'(Whole gospel to whole world by whole church)라는 표어를 내걸었는데, 이는 지구촌 교회에 의한 총체적 지구촌 선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천명한 것이다. 필립 젠킨스의 명저 '신의 미래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가 시사하는 대로, 지구촌 기독교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한 것이다.

필자는 지난 170여 년간 세계복음주의교회의 대화와 협력의 장(場) 역할을 감당해온 세계복음주의연맹(WEA) 2008년 총회에 국제 위클리프 리더십 팀원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세계 백여 나라에서 오백여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당면현안과 과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며 대화하는 자리에 한국교계를 대표할 만한 지도자가 거의 없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선교적 동역은 곧 세계선교운동에 동참하는 일인데, 이는 한국선교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본질상 세계적인 선교행위를 한민족끼리 자신의 우물에 빠져 폐쇄적으로 수행하는 모순을 속히 극복해야 한다. 이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선교사의 수를 자랑하거나 십만 명, 백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자는 야심만만한 계획보다 시급한 것은 세계교회와 손잡고 선교적 동역을 일궈내는 일이다. 21세기 세계선교의 화두가 동반자관계(partnership)이고, 세계교회가 다양한 형태의 동역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좀처럼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가지 않는 한국선교의 당면과제는 양적 팽창이 아니라 세계교회와 더불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질적 성숙인 셈이다.

다문화 동역을 향하여

다문화 동역은 글로벌 시대의 요청일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완성된 천국을 반영하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동역이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 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사례가 드물기에 세계교회가 함께 이마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며 실험해야 할 어려운 숙제인 셈이다. 동질문화권이 아닌 이질문화권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선교공동체를 이루고 효과적 동역을 일궈내기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교학자 셔우드 링겐펠터는 이 작업을 '다문화 동역의 개발' 또는 '동반자관계의 재구성'(Reframing Partnerships)으로 정의하면서, 먼저 다음 이슈들을 숙고하고 건강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1) 시간 지키기(Time keeping)인가, 시계 만들기(Watch making)인가?

우리는 되도록 많은 선교사를 신속히 동원하여 최단시간에 우리가 목표하는 과업을 완수하려 하는가(시간 지키기), 아니면 미래에도 선교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시계 만들기)? 남은 과업은 시계 만들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그들 안에 역량을 구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2) 동역에 대한 바른 이해

서구인들이 동반자관계를 특정기간 유효한 비지니스 계약 정도로 이해하는 반면, 비서구인들은 결혼이나 입양 같은 장기적 관계로 이해한다. 피차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반된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동역의 첫걸음이며, 신뢰에 근거한 대인관계가 성공의 열쇠다.

3) 동반자 알기

링겐펠터 박사는 사도행전 2:41-46을 동역자 개발의 모델로 본다. 미래의 동반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배우며, 교제하고 나누며, 더불어 먹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비서구권에서는 동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전에 먼저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4) 쌍방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동역의 공통분모에 초점 맞추기

동반자간의 차이가 갈등과 오해의 원인이 되지만, 양자를 뭉쳐주는 공동관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초점을 맞추면 일체감이 강화된다. 업무적 논의에만 집착하기보다 개인과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차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는 과정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일종의 감옥인데,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지 깨닫고 한 발을 천국에 내딛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쌍방적/다중적 문화습득

선교현장에서 효과적 동역을 일궈내려면 선교사가 현지문화를 이해할 뿐 아니라 현지 동반자도 선교사(집단)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간 전자는 강조되는 편이지만, 후자의 필요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지하거나 간과되었다. 따라서 건강한 동반자관계를 위해 쌍방적 문화습득이 꼭 필요하다.

6) 동역을 방해하는 죄: 비판, 불신, 두려움, 힘의 논리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문화적 편견의 잣대로 남을 비판한다. 다문화 동역을 위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비판을 삼가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관계형성의 장해물이며, 끊임없는 의사소통이 건강한 대안이다. 불신도 문제다. 우리가 잘 모르거나 우리와 다른 사람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방을 알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때 참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죄는 두려움이다. 다문화 동역은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두려운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하는데, 이때 두려움에 근거한 행동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독점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줘야 참된 동역이 가능해진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방법이다(빌립보서 2장).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효과적 방법이다.

7) 자원 (Resources)

불균형 자원은 동역의 큰 걸림돌이다. 전통적 선교체제는 대부분 현지 동역자가 따라잡기

어려운 고비용 틀이다. 선교사와 현지 동반자간의 재정적, 학문적, 신분적 불균형이 건강한 동역에 지장을 주는 것이다. 재정적, 행정적 의존심을 키우지 않고, 현지 동반자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으며, 자원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거나 극복할 길을 모색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약교회가 보여준 '연약함의 선교'를 재발견하고 회복하는 일이 요구된다.

8) 부르심인가 돈벌이인가?

이 질문은 현지인뿐 아니라 선교사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교현장에 갔다고 믿지만, 현지인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 선교현장에서 피고용자가 아닌 동역자를 얻어야 하고, 자기 하수인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해야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9) 책무(Accountability)와 주인의식

일반적으로 현지인이 책무가 약한 것으로 알려진 경향이 있는데, 일단 그들에게 주인의식이 생기면 선교사 못지않게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정적, 사역적, 영적 투명성의 부재는 현지인뿐 아니라 선교사의 문제이며, 현지 동반자로 하여금 사역과 영성과 재정의 주인의식을 고취해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0) 신뢰관계에 기반한 구조와 양해각서(MOU)

구조와 조직이 중요하지만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구조와 조직은 좋은 하인이지만 좋은 주인은 아니다.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양해각서를 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문서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동반자관계에 적용해야지 동역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문서 없이 동역을 지속해도 별문제 없다. 양해각서가 필요한 이유는 종종 현지 동반자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가 자주 바뀌는 선교단체 때문이다.

나가며

이천 년 이상 이어온 선교릴레이의 최종주자인 현대교회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핵심과제는 범세계적 동역과 협력이다. 세계복음주의연맹 선교분과(WEA Mission Commission)는 선교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왕국적 연대를 호소하는 책자('Kingdom Partnerships for Synergy in Missions')를 통해 세계교회가 동역해야 할 당위성과 근거, 동역의 실제와 연관된 주요 이슈들, 선교기관들의 국제화, 그리고 동역의 모델들을 제시한다.

이번 제3차 선교컨설팅을 통해 '온누리'란 이름에 합당한 글로벌 선교동역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부록: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15 핵심원리 (INTERDEV, 현 IPA)

1. Effective partnerships are built on **trust, openness and mutual concern**. Partnerships are more than coordination, planning, strategies and tactics. The heart of the Gospel is restored relationships. Spending time on getting to know, understand, and appreciate each other is not an option.

2. Lasting **partnerships need a facilitator or coordinator** -- someone who, by consensus, has been given the role of bringing the partnership to life and keeping the fires burning. This "honest broker," usually loaned or seconded from a church or ministry, committed to the task, must be a person of vision who will keep on despite all discouragement. Prophet, servant, and resource person -- this individual has to be trained and nurtured. One person serving everyone in a partnership is a lonely task.

3. Successful partnerships **develop in order to accomplish a specific vision or task**. Partnership for partnership's sake is a sure recipe for failure. Warm "fellowship" is not enough. This means lasting partnerships focus primarily on what (objectives) rather than how (structure). **Form always follows function** -- not the other way around. Consensus is usually better than constitution! Focus on purpose. Structure should be only the minimum requited to get the job done

4. Effective partnerships have **limited, achievable objectives in the beginning; more expansive as the group experiences success**. Though limited, these objectives must have clear: A. Kingdom significance that captures the imagination and provides motivation for the group. B. Relevance to each church or partner ministry's vision and objective

5. Effective partnerships **start by identifying needs** among the people being reached or served. They do not start by trying to write a common theological statement. From these needs, Kingdom priorities, barriers to spiritual breakthroughs, and the resources available or needed, realistic priorities for action must be distilled and agreed.

6. Effective partnerships have **a partnership "champion"** inside every partner church or other ministry -- a person who sees how their church or ministry can benefit from such practical cooperation; an individual who will sell the vision to their colleagues and keep the partnership focused to realize those benefits.

7. **Partnerships are a process** not an event. The start-up, exploration and formation stages

of a partnership often take a long time. Call a formation or even exploratory meeting too early and you will likely kill the possibility of a partnership. Ultimately personal trust is required. Taking time to establish it privately in one-on-one meetings, the facilitator will find that later, in the group, it will pay rich dividends.

8. Effective partnerships are even more **challenging to maintain** than to start. To make sure the vision stays alive, the focus clear, communications good, and outcomes fulfilling takes great concentration and long-term commitment.

9. Effective partnerships are **made up of partners with clear identities and vision**. The churches and other ministries involved must have their own clear mission statements and live by them. Otherwise they will never understand how they "fit in," contribute to the overall picture, or benefit from the joint effort.

10. Effective partnerships **acknowledge, even celebrate the differences in their partner** ministries, histories, vision, and services. But partnerships must ultimately concentrate on what they have in common, like vision, values and ministry objectives rather than on their differences.

11. Effective partnerships serve at least **four constituencies**: the **people they are trying to reach; the partner churches/ministries with their own staffs and vision; the partner finding and praying constituencies behind each of these ministries; and, eventually, the partnership itself with its growing expectations**. There are many more players around the table than we often acknowledge. We must remember their need for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a sense of fulfillment.

12. Effective partnerships have a **high sense of participation and ownership**. Facilitators need to give special attention to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in objective-setting, planning and the process of meetings, and on-going communications --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widest possible ownership and commitment to the common vision. Let people in on the process, not just the dream.

13. Effective partnerships see **prayer and communion as uniquely powerful elements to bind partners together** in Christ. Effective partnerships are refreshed and empowered by frequently praying in small groups where individuals can express concern for each other's personal needs; and by the group taking communion together.

14. Effective partnerships do not come free. Just participating in the exploration, planning,

launching, and coordination **takes time and money**. Deeper commitment may take still greater investments. But, the "return on Kingdom investment" through the partnerships should more than offset the contributions a church or other ministry may make.

15. Effective partnerships **expect problems and pro-actively deal with them**. Make sure a process is built into the partnership for dealing with changes, exceptions, disappointments, unfulfilled commitments, and simply the unexpected. Small problems must be addressed immediately. A wise man knows one thing -- the only predictable thing is the unexpected.

2018·온누리선교컨설팅

주제 : 온누리를 넘어서

2018
온누리선교컨설팅

ONNURI·MISSION·CONSULTING

<온누리교회 선교와 글로벌 협력선교>

- 김홍주 목사 -

온누리교회 선교와 글로벌 협력선교

김홍주 목사

온누리교회의 선교역사는 협력선교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교회가 시작된 초기부터 하용조 목사는 다양한 선교단체들의 지도자와 교류하며 이사로 참여했고, 70여개 단체들을 통해 온누리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제2기를 책임 맡은 이재훈 목사 역시 온누리교회의 독자적인 사역보다 대형교회로서 한국교회와 책임을 분담하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 협력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온누리교회가 새로운 차원의 협력, 즉 글로벌 교회간의 동반자적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제 기독교의 중심축이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옮겨졌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1]. 이제 남반구 교회들은 선교사를 받는 나라에서 파송하는 나라로 변화되고 있다. 한국교회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쳤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줄 수 있다. 또한 선교현장에서 동반자로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선교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개척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간 동반자적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기존 온누리 교회가 해오던 사역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보충하자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온누리 교회가 발전시켜온 선교개념들을 살펴본 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교회간 협력선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전방개척선교

온누리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던 1980-90년대는 소위 '전방개척선교', '미전도 종족선교' 운동의 시대였다. 전방개척선교는 1974년 로잔대회에서 랄프 윈터가 발표한 논문, "The highest priority: cross-cultural evangelism" 에 자극을 받아 복음주의 권에 서서히 수용되고 발전된 선교 패러다임이다. 랄프 윈터는 이 논문을 통해 그 동안 국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온 선교에서, 종족을 초점으로 하는 선교로 변화되어야 할 당위성을 역설했다. 즉 선교란 지역적 거리 개념이 아닌 문화적 거리를 넘어가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 지리적 개념으로 볼 때, 거의 모든 나라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선교의 대위임령이 거의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싶을 때였다.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는 이제 해외선교의 임무는 거의 끝났고, 더 이상 선교사 파송은 의미가 없으며, 지역 복음화의 과업은 현지교회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때 윈터는 국가 단위가 아닌 종족 단위로 볼 때, 일반적인 선교의 방법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많은 감추어진 종족 그룹들(hidden people groups)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이들과 이미 전도된 종족 사이에는 쉽게 넘을 수 없는 편견과 오해, 이해와 수용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특별히 문화에 민감한 복음전도(culturally sensitive evangelism), 즉 '타 문화적(cross-cultural) 복음전도'를 통해서만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고, 선교의 명령은 완성을 기대할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2]. 이러한 통찰은 복음주의권 선교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

1) 필립 젠킨스는 2002에 출판된 그의 책 『The Next Christendom』에서 이러한 사실을 설득력있게 증명해 주었고, 이후 발간된 패트릭 존스턴의 『세계 교회의 미래』등에 나타난 통계수치들은 기독교의 중심이 이미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해주고 있다

2) Winter, R.D., "The Highest Priority: Cross-cultural Evangelism", In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 P 230

랄프 윈터의 주장은 이제 우리의 선교의 과제가 지리적 거리를 넘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거리를 넘어서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주었다. 현지교회에게 점점 역할을 위임하고 선교지에서 철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던 파송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로서는 새로운 선교의 블루오션이 발견되는 순간이었다. 이후 복음주의 선교운동은 소위 '미전도종족' 지역, 10/40 window로 사역을 집중하게 된다.

온누리 교회는 이러한 복음주의권의 선교적 흐름을 읽고 처음부터 주로 전방개척지역의 선교에 집중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 대형교회들이 프로젝트성 선교나 해외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것과 비교해볼 때 대단히 전략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선교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방개척선교 중심의 선교전략은 온누리교회가 1996-1998년사이에 15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는 열매로 맺어졌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소위 10/40 윈도우의 개척지역에 배치되게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전방개척선교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난 50여년 동안 전 세계 복음주의 선교진영이 전방개척선교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에는 의미있는 선교학적, 신학적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20억이상의 인구가 복음에서 소외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난 50년동안 세계선교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온 세계화, 도시화로 인해 이주민과 난민이 증가하고 있고, SNS나 온라인으로 세계가 연결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이때에 온누리교회의 전방개척선교 전략도 융통성 있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총제적 선교

1974년 로잔대회가 복음주의권에 미친 또 하나의 영향은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 개념의 부상이다. 사실 복음전도와 영혼구원에 집중해오던 복음주의 선교계에,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주장하는 확장된 선교의 개념, 즉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은 부담스런 주제였던 것이 사실이다. 총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 복음전도를 소홀히 하는 것 같고, 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자유주의 진영의 확장된 선교개념을 받아들이기에는 주저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1974년 로잔대회에서 남미의 사무엘 에스코바, 그리고 르네 빠디야의 주장, 그리고 존 스토트가 주도해서 작성된 로잔언약에 나타난 균형잡힌 선교관에 의해 복음주의 선교가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문제를 소위 '총체적 선교', 혹은 '통합적 선교(Integral Mission)' 개념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신학적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필자는 하용조 목사가 영국에 머물 당시 런던 인스슈튜트에서 존스토트 목사에게 직접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일은 온누리교회 선교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용조 목사는 그때 "두란노 서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는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에 무관심했다. 신앙과 세상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강했다. 그러나 하용조 목사는 존스토트와의 만남을 통해 온누리 교회가 세계선교뿐 아니라, 창조과학, 방송, 교육, 일터사역, 긍휼사역과 복지, NGO 등 총체적 영역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하는 신학적 기초가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온누리 선교는 처음부터 전방개척선교뿐만 아니라 총체적 영역에 관심을 갖는 균형잡힌 선교의 특징을 가질 수 있었다.

3. 이주민, 난민 선교

온누리 교회는 1994년부터 한국에 온 이주민들에게 주목했고 이주민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1월 이재훈 목사는 점차 증가하는 이주민·난민의 흐름에 주목하고 이주민·난민 사역을 온누리 교회의 시대적 소명으로 선포하고 국내 이주민사역을 위한 M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온누리교회의 선교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은 단일민족 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급격하게 이주민과 다문화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주민 사역은 일부 소명이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 개인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 온누리교회가 안산에 M미션센터를 개원하고, 이주민사역을 온누리교회의 시대적 소명으로 선포함으로 이제 이주민사역이 많은 선교사역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 선교사역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 일은 온누리교회가 이주민들을 단순한 우리의 시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요 성도로서 받아들인다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는 이제 한국인들로만 이루어진 단일민족교회가 아니라 다민족교회(One church, multi-ethnic congregation)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는 크고 지대하다. 이미 많은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온누리교회를 따라 이주민사역을 각 교회의 핵심사역으로 양성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우리는 이주민, 난민, 다문화가정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온누리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평생교육원, 다문화아이들을 돌보는 스타트리, 직업교육, 차세대사역등도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온누리 M미션 사역은 온누리교회가 핵심역량을 집중해서 지속해야할 사역이라 할 수 있다.

4. 교회간 협력선교

온누리 교회는 2015년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융합선교(convergence mission)로 선포했고, 그 키워드를 '계획적 선교', '팀단위 선교', 그리고 '협력선교'로 잡았다. 우리는 융합선교를 정의하기를 '수용자 중심의 선교',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공급자들(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기꺼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함께하는 선교'로 정의했다.

이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자원들을 위탁받은 교회다. 수많은 전문 인력들이 있고, 재정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다. 대형교회로서 작은 교회들이 가질 수 없는 방송, 선교단체들, NGO, 신학교와 대학 등의 인프라와 네트웍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대형교회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고, 시대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와 한국의 많은 교회, 선교단체들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은 글로벌 남반구의 부흥하는 신흥교회들이다. 기독교는 이제 서구에서 비기독교권이던 글로벌 남반구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선교도 이제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선교사를 파송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제 남반구 교회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적인 은혜를 주변에 나누기 원하고, 나눌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타문화 선교의 경험이 부족하고, 양질의 기독교 지도자 양성기관이나 학교들이 부족한 형편이다. 필자는 여기에 한국교회와 온누리교회의 역할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처럼 피선교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로 전환된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식민지배 경험이 없는 우리는 서구교회들보다 훨씬 쉽게 남반구 교회들과 가까워질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

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60-70년대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보면 한때 비서구권 교회들이 선교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적이 있었다. 그만큼 서구 제국주의 선교행태에 대한 상처가 컸고, 일방적으로 원조와 지도를 받는 위치에서 서구와 동등한 위치에서 동반자로서 사역하고 싶었던 마음이 컷던 것이다. 이에 WCC의 주류 교단들은 선교사들을 직접 파송하는 방법 대신 간접적인 방법[3], 즉 에큐메니컬 협력선교에 집중해왔다. 물론 이들의 선교협력이 오히려 그들의 자유주의신학을 확산하는 통로가 되고 비서구 주류교단들의 교회와 신학교들을 약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간 선교협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 당시에 비해 이제 아프리카와 남미, 중국 등에서 복음주의 기독교는 훨씬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들로 성장했다. 그들은 서구교회와 동반자로서 사역하기 원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선교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이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4].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금번 제4차 온누리 컨설팅 모임이 '제주 세계선교 훈련센터' 착공식에 맞추어 제주도에서 열리는 것은 온누리교회 선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제주 세계선교 훈련센터가 향후 온누리 글로벌 협력선교의 전진기지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온누리 교회가 생각할 수 있는 글로벌 선교협력의 기회를 몇가지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지금 온누리 교회는 매년 횃불 트리니티의 외국인 신학생들에게 2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18개국 21명의 학생들이다. 이들은 주로 MA, M.Div, ThM 과정을 영어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각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재원들이다. 또한 한동대와 전주비전대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의 좋은 선교자원들이다. TIM은 이들과 MOU를 맺고 이들을 이미 선교자원으로 동원하고 있는데, 이들은 향후 온누리 교회와 그들의 출신국 교회간의 선교협력 중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온누리 M 미션, 중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등의 역파송 선교사들을 매개로 협력선교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어 예배 출신중 중국으로 역파송되어 모범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 또한 일본어 예배출신으로 일본 비전교회, 그리고 현지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목회자들도 있다. M미션도 역파송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18개국 28명의 선교사를 본국으로 역파송했다. 이들은 온누리 교회와 함께 사역하면서 온누리 교회의 목회철학과 교회론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활동할 때 온누리교회와 본국교회의 좋은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온누리교회는 이제 한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교회가 되었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안고 달려온 온누리교회는 그동안 다른 교회들이 가보지 않은 독특한 목회적·선교적 실험들을 해왔고 상당한 열매를 거두었다. 특별히 선교지향적 목회철학과 교회론, 그리고 그것을 뒤받침한 모달리티(Modality)와 소달리티(Sodality)의 융합구조는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나눌만한 가치가 있는 온누리교회의 자산이라고 믿는다. 즉 지역교회(모달리티)로서 온누리교회는 12개 사역본부를 두고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도왔을 뿐 아니라, 이들을 TIM, 더멋진세상(NGO), CGN TV, 두란노 서원, 사회선교본부, 복지재단,

---

3) 예를 들어, WCC는 신학교육기금(TEF)를 조성하여 각 나라의 신학교육을 지원해 왔는데 그 혜택은 주로 WCC의 신학노선을 지지하는 교회들에게 돌아갔다

4) 이미 서구의 많은 국제선교단체와 교회들은 이들과의 협력선교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오고 있다

아버지학교, 한동대, 에젤, 그리고 80여개의 협력단체등의 소달리티에 파송함으로 세상을 섬기고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 왔다. 오늘날 글로벌 남반구의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은 선교적 열정은 있지만, 어떻게 선교해야할 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 많은 교회지도자들이 온누리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어쩌면 이들중에는 온누리교회가 대형교회로 알려져 있기에 교회성장 스토리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에게 단순히 교회성장의 모델이 아니라 '모이고 흩어지는' 성경적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기 원한다. 그 동안 우리는 '바로 그 교회', '비타민 C'등과 같은 간헐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사역을 해 왔지만, 이제 제주 세계선교 훈련센터의 개원과 더불어 이러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중국과 세계에서 온 교회지도자들에게 온누리교회가 경험해온 선교적 경험과 목회철학, 그리고 교회론을 나누고, 또 그들로부터도 선교적 도전을 받기 원한다.

4) 온누리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적 바로 그교회','ACTS 29'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중에 있는 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글로벌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그들이 구축해 놓은 선교인프라를 함께 공유하며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글로벌 남반구에 있는 교회들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는 그동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속에 비교적 건강한 교회로 신뢰를 받아왔기에 이런 선교플랫폼의 역할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천선교본부는 온누리교회에 주어진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본부안에 새로운 부서를 두고자 한다. 가칭 OGP(Onnuri Global Partners) Team인데 향후 글로벌 네트웍과 협력을 주관하는 부서가 될 것이다. 이 부서는 어떤 새로운 사역을 행한다기보다 기존에 해오던 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이천선교본부안에 신설되는 부서이다.

결론

이제 복음주의권의 선교패러다임도 전도와 교회개척중심의 전통적 선교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패러다임으로 이미 옮겨졌다. 이러한 변화는 선교를 보다 포괄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이자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선교를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관점(Either A or B)이 아니라 기존의 선교를 포용하는 이것도 저것도(Both A and B)의 변화가 되어야 한다. 오늘 선교컨설팅 모임이 온누리교회 선교가 이런 건강하고 균형잡힌 선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선교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8·온누리선교컨설팅

주제 : 온누리를 넘어서

2018
온누리선교컨설팅

ONNURI·MISSION·CONSULTING

<온누리선교 현지화를 위한 제언>

- 한정국 선교사 -

(2018 온누리2000컨설팀 제주모임)

온누리교회의 선교현지 파트너십

한정국 선교사/ hanjcook@daum.net

선교현지에서의 파트너십은 너무나 당연하나, 온누리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미전도종족선교를 추구하고 현지교회가 선교적인 체제가 미흡하기에 선교의 전방(종족과 지역 그리고 영역)을 개척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제 선교사의 정착구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 나라 또는 종족에 적합한 동반선교를 구축할 계제에 와 있어, 현지 교회와의 파트너십 선교를 구가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다.

1. 서구의 4P이론+1P

서구 선교는 많은 선교지에서 Pioneer(개척자)단계, Parents(부모)단계를 거쳐 Partner(동업자)단계로 발전하였고, 상당 지역은 이미 Participant(참여자)단계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한국(남한)에서처럼 그들은 철수(Passed Away)하였다. 온누리교회가 지난 33년간 선교사를 보낸 지역은 서구의 4P지역이 혼재하였고 이미 동역자 단계에서 들어와 있는 선교지의 기독지도자들 눈에는 온누리교회 선교가 새로운 주목이 되고 있다.

2. 온누리 선교의 종합전략이 주는 영향.

온누리교회는 전통적인 단순 선교뿐 만 아니라, CGN을 통한 영상선교, 아버지학교를 통한 가정변혁사역, Better World를 통한 NGO사역, 경배와찬양 사역을 통한 창조적 예배선교, SWIM을 통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개발선교, BEE를 통한 성경공부 목회자 개발 사역 등 우리 내부의 동반자 선교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종합목회 및 사회참여 사역 교회라는 것이 선교현지 지도자의 온누리교회 및 커뮤니티 방문을 통해서 인식되므로, 그들은 온누리 파송선교사를 통해 온누리교회 모델을 자신의 국가에서도 시도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TIM의 남부 스마트라의 한 교단 지도자와 병원 사역자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와 동반사역을 원하고 있다.

3. 일반적인 한국 선교사들의 현지 파트너십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와 그 파송 선교사들은 조급히 열매를 구하려는 압박감이 존재한다. 19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도착 후 90년이 지난 1970년대 중반 영적 돌파구를 경험하고 1980년대와 1990년 이후에 주로 파송된 선교사들은 급성장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갖고 선교하기에 선교지에서 조급한 편이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가 일하는 선교지는 이미 우리보다 선교받은 역사가 훨씬 오래 전이고, 우리가 선택한 선교지에는 이미 기독교회와 지도자들이 있는 지역이었다. 그들은 서구 선교사들과 동역 경험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선교의 메카니즘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다. 특히 일부 삯군기질의 현지 지도자들은 한인선교사의 조급함과 가려운 부분을 잘 알고 접근한다. 그리고 소위 프로젝트 선교로 유도하고, 선교헌금이 쉽게 모인 한국교회는 이에 쉽게 접목되고, 수많은 유급 현지 사역자들과 동역을 시작하고 물질선교에 빠져들게 되었다. 일부 선교사들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여 이를 본국에 그대로 보고할 수 없어 뭉게는 사고가 여기저기 발생하였다. 소위 네비우스 정책으로 부흥한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Non 네비우스 정책으로 선교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 현상은 선교 현지가 이미 파트너십 단계인데 새로 개척하는 한인선교사들이 첫 단

계처럼 일하기도 한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장로교 선교지역으로 서구 단체의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감리교가 없었는데 1990년 파송된 감리교 한인선교사들이 그곳에 교단, 신학교 그리고 감리교회를 세우는 개척으로 감행하였다. 말레이시아는 감리교가 강한 지역인데 언제부터인가 장로교가 입성하여 열심히 선교한다. 교단이 틀리면 파트너십은 쉽지않은 것이 한인선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4. 온누리교회가 추구해야 할 파트너십 모델

우리는 CGN Japan설립과정과 Love Sonata를 현지 지도자들과 동반사역을 추구한 경험이 있다. CGN Japan은 일본 목회자들이 호평하고 있고 그들의 참여도가 점증되어가고 있다. Love Sonata하루 전날 밤 집회는 이미 일본 지도자들이 기획하고 잘 하고 있다. 바라기는 일본 교회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해외선교의 큰 창구인 TIM의 선교도 이제 중간평가 기간을 가지면서 미래지향적 현지 파트너십을 제고하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TIM파송 선교사들이 온누리교회 사례를 적절히 활용을 했으면 한다. 온누교회처럼 성장시키라는 말이라기 보다, 우리의 현지 교회 접근 전략을 한국의 온누리교회를 활용하여 새롭게 추구해 보자는 것이다.

1) 온누리교회 모델의 특수성

온누리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기 보다, 독특한 모델이라고 보고 싶다. 이 모델은 짧은 기간에 놀랍게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한 대형교회인 Missional Community 모델이다. 이런 모델은 선교지에서 찾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는 각 국가에는 대형교회가 반드시 존재한다. 기독교세가 열약한 태국에서도 Hope Of Bangkok교회가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약 일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몇 개나 될 정도이다. 이런 교회들에게 온누리교회는 벤치마킹할만한 매력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온누리교회의 선교는 수많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Missional Church가 되도록 자극했고, 교회 개척 초기부터 꿈꾸고 시도했던 선교의 열정은 선교지 교회가 본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하는 선교지 교회는 선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받는 것에 익숙한 교회가 많다. 심지어 대형교회도 그러한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되도다‘라는 정신으로 무장한 온누리모델은 그들에게 역설적인 도전모델이 될 수 있다.

2) 특수한 모델이 갖는 강점과 약점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 일부분에서 교회성장과 부흥을 목격하고 자랐기에 교회개척과 성장에 강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성장을 현지에서 기대하기에는 무리이고 조급함으로 많은 실수가 있으며 형편없는 열매 앞에서 낙심할 우려도 큰 편인 것이다. 그러나 다행이도 온누리교회는 Vitamin집회를 통해 선교지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온누리 사역 사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이 제도를 선교사들이 잘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3) 구체적 실행 제안

선교지에 있는 대형교회를 우선 리서치하고, 그 목회 지도자들을 조사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그들과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길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현지인들 즉 우리 선교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에 주목하였다면 이제는 현지 한인선교사들의 다리를 이용하여 온누리

2000본부가 현지 대형교회 리더들을 만나고, 현지 온누리 파송 선교사들의 통역과 다리 놓기로 두 교회 간 파트너십을 논의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대륙별로 현지 대형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21세기 교회종합 성장 세미나**를 개최해 보기로 하자. 비행기 비용과 소정 형식의 등록비용은 참가자 각자 지불하도록 하되, 교회에서는 환대와 함께 서로 배우고 나누는 자세로 유지하여 세미나와 현장방문토론을 계속하면 어떨까 한다. 온누리모델은 교회, 가정, 교육, 미디어, 비즈니스, 아트&엔터테이먼트 등 6개의 영역 변혁에 깊은 참여 성공을 보이고 있다. 선교지 대형교회로 하여금, 현지 식 기독교육, 아버지학교, CGN같은 미디어 사역, 두란노 문서 사역, 연예인교회 등의 인사이트를 얻어 개발시키면 어떨까 한다. 이때 2000/10000운동의 비전과 그 실현과정 사례를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형교회가 시도할 수 있는 현지형 선교를 마중물로 하여 현지 중소 교회를 견인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온누리 선교는 온누리 교회의 총체적 사회변혁모델을 아주 세세히 나눌 수 있도록 기획하고, 지도자들이 돌아가서 현지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교회성장 전략을 꾀할 때 TIM등 온누리 파송 선교사들이 그 파트너십에 기름칠 역할과 적절한 동반자가 되면 좋을 것이다. 단지 이때 우리의 선교사들이 그 프로젝트의 일부를 맡아, 한국교회의 재정을 끌어다가 조급하게 시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 선교사들은 적절한 코칭 역활이지 주도자는 아니다. 그들이 주도하고 기획하고 실천하면 한인선교사는 조력함이 바람직한 동반관계일 것이다.

이 세미나를 대륙별로 한 차례 식 시도한 후 6대륙에서 모인 대형교회가 한국에서 다시 만나 Missional Megachurch Partnership Alliance를 결성하여 그 후부터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이 집회를 개최키로 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부흥축제기간과 연계하여 실시하면 한 교회 부흥의 모든 현장이 어떻게 선교와 연관되어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때 모든 Campus 및 Vision 나눔교회도 함께 참여하여, 선교지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융합목회와 선교의 현장을 체험케 할 수 있을 것이다.

2018·온누리선교컨설팅

주제 : 온누리를 넘어서

2018
온누리선교컨설팅

ONNURI·MISSION·CONSULTING

<SIM 국제 선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한 선교와 가버넌스>

- 성남용 목사 -

SIM 국제 선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본 선교와 가버넌스

Mission and Governance upon Review of the Case Study of SIM International

변화를 위한 SIM 국제 선교회의 몸부림은 2004년 6월부터 Seize the Day(오늘을 잡으라)란 프로젝트와 함께 시작되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호라티우스의 라틴어 싯구 까르페 디엠(Carpe Diem)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선교회의 현재 사역내용과 방향을 진단하여 점검하고, 미래 사역 내용과 방향을 정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는 다윗을 통합 왕으로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잇사갈 지파의 사례를 토대로 세워졌다(대상12:32). 잇사갈 지파의 지도자들은 시대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마땅히 행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SIM 선교회도 그들처럼 시대를 알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기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1) 시대를 이해하고(understanding the times), 2) 마땅히 행할 것을 분별하며(discerning what SIM should do), 3) 실천할만한 사역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ultimately leading to actions). 이 글에서 필자는 먼저 SIM 선교회의 사례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그 진행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그에 기반하여, 한국 선교단체의 가버넌스 구조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SIM 선교회의 사례를 살펴보자.

1)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시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하는 세상을 알아야 그 세상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불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선교회는 일찍부터 변화된 선교적 환경을 직시했다. 먼저 전통적으로 선교하던 서구 선진국들의 선교적 영향력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선교지의 교회들이 성장하여 사역의 내용과 필요가 바뀌고 있다. 세계적으로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주요 종교들을 기반으로 적대적인 진영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여행과 통신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져 명실상부한 세계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외에도 선교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를 직시하며 선교회는 다음 세 가지를 시행했다. (1)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교회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과연 사역이 선교회의 핵심가치(core values)나 성격(ethos)과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2) 선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사, 파송 교회 지도자, 현지 교회 지도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지 관계자들의 선교사역에 대한 만족도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평가했다. 특히 현지 교회 지도자들의 선교회와 선교사역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청취했다. 파송교회 지도자들이나 후원자들, 다른 선교단체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의 다양한 견해도 수집했다. (3) 선교회의 미래 조직체계와 그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이를 위해서 각 선교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설문과 인터뷰 등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 모두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넓고 깊고 진지하게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한 것이다.

2) 마땅히 행할 것에 대한 분별

선교회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출신 선교사들과 동역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선교행정을 단순화하고 현지 친화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다. 후원하는 교회와 후원자들에게도 변화된 사역 환경을 설명하고 함께 참여하게 했다. 먼저 선교회의 조직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사역 방향이나 사역 문화, 그리고 재정정책도 새롭게 만들었다. 다음은 선교회가 새롭게 시행한 대표

적 사례들이다.

(1) 선교사를 사역자 그룹 안에 포함시켰다. 선교회는 2018년 5월 현재 60여 국적의 배경을 가진 4,000명 이상의 사역자들이 70여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전통적 의미의 선교사는 2018년 5월 현재 1800여명에 불과하지만 선교현장의 사역자들을 포함시켜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사와 사역자의 구분을 철폐한 것이다. `

(2) 2015년부터 전통적인 선교사 파송국의 특권을 포기했다. 전에는 선교사를 파송한 9개국이 선교회의 공동 주주가 되어 선교회의 운영과 정책을 결정했었다. 이제는 그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기존 국제이사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에 동의한 것이다.

(3) 국제이사회의 구성제도를 바꾸었다. 선교회는 이제 글로벌 협의체(Global Assembly)를 통해서 국제이사회를 구성한다. 2018년 2월 남아공에서 열렸던 두 번째 GA 모임에는 450명이 대표들과 선교사들이 참가했다.

(4) 43개의 사역조직(entity)을 구성했다. 전통적인 선교국과 전통적인 선교지의 구분을 철폐한다는 선언이다. 각 사역조직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GA로 모여 국제이사를 선출한다. 대체적으로 한 나라가 하나의 조직이 되지만,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하나의 사역조직을 구성한 곳도 네 군데나 된다(Continental & South East Asia, East Africa, West Africa, East Asia). 정식 사역조직이 되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a) 대표, (b) 이사회, (c) 사역자 관리 구조, (d) SIM의 신앙고백(statement of faith)과 핵심가치, 그리고 성격과 비전에 동의한다는 서명 등이다. 이상의 조건과 국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면, 하나의 사역조직으로 인정받는다. 현재 위의 네 가지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예비 사역조직들도 있다. 43개의 사역조직은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로의 선교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사역자들이 대거 사역에 합류하고 있다. 선교회가 국제적이며 다인종적으로 변하고 있다.

(5) 지역이사회 구성 역시 국제이사회의 정신을 따라 구성한다. 지역 선교부의 예산과 사역 등을 논의하고 심의할 각 사역조직의 이사회에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그룹의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선교사들보다 현지 지도자들의 수가 더 많은 지역이사회들도 많다. 사역방향과 내용을 현지교회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다. 전통적인 교단선교회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혁명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마땅히 행할 것에 대한 분별을 현지 선교 지도자들에게 맡긴 셈이다. 엄청난 모험이며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교회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3) 실천할만한 사역 방향과 내용 정하기

사역방향과 내용은 지역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지역 이사회는 현지 선교사, 현지 교회 지도자, 현지 사역자들로 구성하므로 현장 중심적 구조다. 변할 수 없는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변화시킨 혁명적인 구조다. 물론 선교회의 신앙고백과 핵심가치가 있다. 이에 근거해 선교회의 비전을 세웠다. 선교회의 비전은 미전도 지역에 선교역량을 모으고,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제자 삼는 일에 더 넓고 깊게 참여하는 것이다. 외형적인 일보다 내형적이고 영적인 예수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조직을 만들려 한다. 선교회와 연결된 사역자들과 현지인들 모두가 풍성함을 체험하게 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선교회의 전략, 제도 등을 선교회의 비전에 일치시키고 있다. 열린 선교회와 열린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국제 대표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 선교사이다. 이처럼 모든 종족과 교회를 사역의 각종 단계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교회를 동원하여 선교회의 비전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비전을 성취하려는 교회를 선교회가

섬기고 있다. 선교회가 비전에 충실하면서 사역개발(outreach development), 사역훈련(ministry traning), 동원(focused mobilization), 자원개발(resource development), 영적 활력(spiritual vitality) 분야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제이사회는 각 지역선교회의 사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철저한 현장 중심의 사역 구조라 할 수 있다.

한국 선교단체의 가버넌스 구조

가버넌스(governance)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함께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경영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다.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선교와 가버넌스를 연결하여 논하려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막중한 선교적 과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리스도의 대위임명령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선교 현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식민주의적 선교 방식으로는 어떤 선교적 효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3) 모두 함께해야 할 정도로 과업이 막중하다. 모든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킹을 통한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선교의 효과적인 가버넌스 구조를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성경적 선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Spirituality)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선교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왕이나 장군 같은 능력자가 아닌 연약한 갓난아이로 보내셨다. 갓난아이들이 처음 하는 일은 부모와 눈을 맞추는 일이다. 눈을 맞추며 부모와 감정을 공유한다. 그러면서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 배운다. 세상을 보는 방식도 배운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와 비슷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신다(히4:15).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신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으신 방식 그대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요20:21).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배워야 한다.

성육신에서 최소한 두 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다. 1)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처럼 현지인들과 눈을 맞추는 것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선교지에 가지 말아야 한다. 감정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함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웃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2)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은 더 높고 더 명예로운 곳으로 올라가려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경배 받으시는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시는 곳으로 오셨다(요1:11).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2:8). 가난하게 되셨다(고후8:9). 그렇게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빌2:7).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도 귀하게 여기셨다(마11:19). 친구로 불릴 정도였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과 겸손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딤전1:15).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다(빌2:9-11). 바울도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전9:19). 권리를 포기했다(고전9:18).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을 얻었고, 영광스런 미래를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딤후4:8).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권리를 포기하게 한 겸손은 타인의 가치를 인식할 때 드러나는 태도다.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영광과 오늘의 영광만을 생각한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게 한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영광스럽게 마쳐졌다. 한국 선교도 그렇게 영광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묻고 물어야 한다. 우리의 선교적 모델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모라비안, 허드슨 테일러, 윌리암 케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루비 켄드릭 등을 통해서도 선교를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무엇인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길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화평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은 원형으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원형으로의 회복이 성경적인 선교사역을 가능하게 한다. 예수님이 한 순간도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야 한다. 관행과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핵심가치와 성격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와 비전에 집중해야 한다. SIM선교회의 혁명적인 조직개편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내 뜻을 고집하는 태도가 바로 우상숭배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전통적 선교 패러다임에서 성경적 선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2) 지휘자로서의 지도자(Leadership)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게 하셨다(신17:14-15). 그러므로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롬13:1). 권위주의는 피해야 하지만, 지도자의 권위는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위를 존중하라고 명하셨다(신17:12). 자칫 권위를 무시하는 공동체가 되면 사사기 시대의 혼란과 실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바울도 존중해야 할 권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살전5:12-13). 하지만 하나님은 권위를 나눠주셨다.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는 모두 기름부음을 받은 독자적 권위를 가진 기관이었다. 하나님은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제도권 밖에 선지자를 세워 안정을 추구하는 제사장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 필요하다면 왕이나 제사장을 비판하거나 책망하게 하셨다. 또한 세 권위는 서로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 지도자가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권위로 하여금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삼권분립정신이 나왔을 것이다. 선교부도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만 있는 구조는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홀로 짐을 지고 불평하던 모세에게 명하신 게 있다(민11:10-35). 함께 일할 70인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면 이렇게 짐을 나눠서 져야 한다(갈6:2).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을 주신다(고전12:4-7). 모세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인정해야 한다(민11:29). 그래야 나눌 수 있다. 나눠야 더 능동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건강한 책무구조를 만들 수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 선교본부를 이끄는 지도자는 주인(master)이 아닌,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 하게 하는 지휘자(maestro)가 되어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20%의 리더가 아닌 80%의 팔로워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버넌스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3)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책무구조(Accountability, Transparency, Reliability).

바울이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할 때, 사도인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성도들이 인정한 복수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함께 처리하게 했다(고전16:4). 디도와 다른 형제들도 그 일에 포함시켰다(고후8:22-24).

믿을 수 있는 한 개인이 아닌, 2명 이상의 조직이 그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신뢰의 차원이 아닌 서로가 책임을 지게 하는 책무구조의 차원에서 일을 처리한 것이다. 바울 자신도 그 구조에 포함시켰다. 선교사의 후원금 관리나 선교지의 재산권 문제도 책무구조 안에서 다룰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책무구조는 더 투명하고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선한 일이 비방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고후8:20).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했다(고후8:21). 선교회를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책무구조를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4) 효율적인 현장 중심 행정구조(Efficiency).

선교본부와 지역 선교부의 관계가 한 나라의 정부와 대사관 같은 기능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본국의 이익을 위해 세워진 대사관과 같은 기능은 지역선교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기업의 현지 지사처럼 기능해서도 안 된다. 선교사들의 이익단체나 선교사들만을 위한 행정서비스 조직으로 한정시키지도 말아야 한다. 지역 선교부는 철저하게 현지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성육신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런 구조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SIM선교회는 개방형 구조를 선택했다. 현지 지도자들이 한국 선교회의 지역 선교부에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필요하면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도 참여시킬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선교사들은 줄곧 홀로 사역해 왔다. 외국선교사들과의 동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27%에 불과했다(성남용 2009). 물론 우리만의 선교회에 현지인들이나 외부인들을 포함시킨다면 불편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점도 거리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감한 재정문제나 인사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윌리암 케리식의 선교기지(mission station) 형태의 선교방식은 21세기 선교에 맞지 않는다. 그동안 선교기지 방식의 선교는 식민주의적 선교형태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니까 지역 선교부가 현지인들에게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현지교회와 함께 선교적 목표를 세우고, 선교적 비전도 공유해야 한다. 함께 하면 얻을 수 있는 선교의 시너지효과가 있다. 지역 선교부를 선교사들만의 섬으로 만들지 말고, 현지와 밀접하게 연결된 열린 조직이 되게 해야 한다.

(2) 위클리프와 SIL International(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으로 알려진 선교단체)은 이중구조로 본부와 현장 선교부의 역할을 구분했다. 선교 본부는 위클리프처럼 파송, 후원, 병참 사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선교부는 SIL International처럼 사역형 구조로 개조해야 한다. IMB(International Mission Board: 남침례교선교회)도 본부행정조직은 후원조직의 역할만을 감당하고, 선교사역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게 한다. IMB의 본부 이사회는 선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을 만들지만,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3) 지역 선교부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선교사들의 행정비 일부를 지역 선교부의 행정비로 쓰게 하고, 사역비와 프로젝트 기금에서도 일정부분을 행정비로 징수하여 지역 선교부의 행정비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효율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선교사역이 가능해진다. 재정적 기반이 없으면 지역 선교부의 분권 행정도 할 수 없다.

(4) 선교 현장을 효율적 사역을 위한 분업구조로 바꿔야 한다. 은사에 따라 각자의 사역을 전문화시켜야 한다. 현재는 선교사들이 각자 자신들의 비자, 현지적응, 선교지 주택, 자녀교

육, 안식년 여행, 의료 등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각개전투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관공서 일 처리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혼자 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진다. 전에 필자가 사역하던 나이지리아는 현지인의 초청이 없으면 여행비자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런 곳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지만 한 번도 비자 문제로 고통당한 적이 없다. SIM 선교회 안에 현지 전문가와 함께 비자업무를 전담하던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교지의 법을 잘 알면 합법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비자를 취득할 방법이 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편법을 쓰려고 한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쓰는 편법은 쉽게 적발될 초보 수준이다. 자칫 현지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선교사(들)를 믿지 못할 사람들로 인식시킬 수 있다. 의료 문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역중심구조가 되면 얼마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다. 혼자 무엇이든지 다 하는 구멍가게에서 각각 자신의 일만 해도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대기업 같은 분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선교계의 애플 같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선교의 창의성, 효율성, 생산성, 투명성, 책무성은 이런 분업구조에서 나온다. 자전거를 만들려면 천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하다. 자동차 한 대는 3만 개의 부품이, 점보 비행기는 3백만에서 7백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세밀한 선교의 분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사, 선교회, 파송교회, 현지교회, 현지 사역자들이 모두 그 창의적 선교의 과실을 거둘 수 있다.

선교사 수급, 프로젝트 및 재산권 조정, 지역에 맞는 선교전략 수립 등은 지역 선교부에 맡겨야 한다. 현장에서 현지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선교사를 본부에 청원하고, 본부는 그에 근거한 선교사 충원의 필요성을 전국교회에 고시하고 파송을 지원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결정할 때, 선교현장의 요구는 선교사의 비전이나 교회의 비전보다 우선되지 않았다(성남용 2009). 현장의 필요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가 없었고, 선교회에 대한 지역교회의 낮은 신뢰도 때문이었다. 각개전투 형태의 선교를 지양하고 협력과 분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앞선 선교사들은 후배 선교사들에게 선교의 세르파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 세르파 없이는 히말라야 등반도 할 수 없는데, 막중한 선교를 어떻게 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한 프로젝트를 지역 선교부에서 주도하게 하면 선교지 재산권 문제 등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다른 선교사들과의 협력사역도 더 용이해진다. 더 쉽게 지역에 맞는 선교전략을 세울 수 있다. 지역 선교부가 협력하는 현지교회와 독립적(independent) 관계인지, 의존적(dependant) 관계인지, 아니면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관계인지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협력 사역을 시행해야 한다. 현지 선교정책은 현지에서 세우되, 본부에서는 거시적 비전을 세워 사역을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전도 종족 선교, 청소년과 어린이 사역, 교회개척 사역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5) 소통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킹 구조(Communication & Networking).

선교관계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행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참여해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아진다. 참여하지 않으면 냉소적인 방관자가 되기 쉽다. 선교사의 42%가 현장의 소리가 정책화되지 않는다며 한탄한 선교단체도 있다(성남용 2009). 선교사들이 선교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만족도도 높고, 만족도가 높으면 선교지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도는 참여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선교본부는 현장 선교사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선교정책의 현장중심화가 중요하다. 참고로 IMB 선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5천여 선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았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행15장). 안디옥 선교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는 다른 지역에 까지 영향을 미칠 초대교회의 최대 난제였다.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 그리고 결정된 내용을 전달할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공의회가 모였다(행15:1-21).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많은 사람들이 발언하며 함께 논의했다. 베드로가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말했다. 바나바와 바울도 선교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논의의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론을 선교현지에 통보하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일치, 포용과 교제를 깨지 않도록 각 교회에 권유하기로 했다. 만약 로마 원로원이 이 편지를 보냈다면, 명령문을 하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성도들을 형제라 칭하며, 문제가 일어났던 지역의 지도자들과 함께 내린 결정 내용을 전했다(행15:22-31).

교회에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여러 자치기관들이 있다. 각 기관이 가진 독자적 권위가 있다. 한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더 높지 않다. 상하의 계급을 의미하는 기관이 아니다. 물론 기능적인 차이와 권위의 질서에 따른 위계는 있지만, 독립된 기관이다. 선교회의 조직도 마찬가지다. 선교본부에서 현장 선교부로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교회의 이사회와 선교 실무를 맡은 선교사들의 조직도 상하관계의 조직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독자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조직이 되게 해야 한다. 복음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등은 타협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도 많다. 예배드리는 시간, 모습, 형태, 찬양, 사용하는 악기, 사역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결정하는 것 등은 타협할 수 있다. 선교사들이 함께 선교정책, 사역방향, 사역내용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일방통행식이 아닌 서로의 의견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소통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통섭(Consilience)이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약150년 전에 영국인 신학자 윌리엄 휘웰(William Whewell),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 1998)이 사용한 용어다. 생물학자 최재천이 통섭으로 번역해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윌리엄은 이 용어를 쓸 때 작은 지류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룬다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한다. 오늘날 학문세계에서 통섭이 자주 논의되고 있다. 선교계에서도 주요한 테제로 삼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종적 차이, 빈부의 차이, 교육정도의 차이, 문화적 차이, 국가적 차이가 도덕적 영적 차이를 규정하지 않는다. 차이를 과장하면 함께하는 선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선교적 과제와 도전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선교지가 진영화 되고 요새화 되는 경향도 여전하다.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해야 한다. 기존의 편견을 깨고 선교사와 현지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다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도 함께 해야 한다.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관점을 토론하고, 함께 꿈과 비전을 나누고, 함께 사역해야 한다. 각자 자기만의 집을 지으려 하지 말고,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해야 한다. 미시적인 선교도 해야 하지만, 거시적인 선교를 설계하고 사역해야 한다. 그래야 맡겨진 선교사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성남용 (2009). “선교정책으로 비추어본 한국선교와 정책선교를 위한 실천계획,” 총신100만 연구논문집. 총신100만 기도후원회.

2018·온누리선교컨설팅

주제 : 온누리를 넘어서

2018
온누리선교컨설팅

ONNURI·MISSION·CONSULTING

<현지인 사역자 개발과 사역의 위임>

- 조문상 선교사 -

현지인 사역자 개발과 사역의 위임

조문상

1. 현지인 중심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

   A. 선교의 목표: 토착화(상황화)

      1) 토착화: 보편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세상에 존재하는 특정 문화의 형식과 심볼로 옮기는 것[1]

      2) 목표

         a) 자치(self-governance): 행정

         b) 자립(self-support): 재정

         c) 자전(self-propagate): 사역[2]

      3) 분야

         a) 의사전달 형식

         b) 전파 방식

         c) 인력

   B. 선교의 단계

      1) 개척

      2) 부형

      3) 동역

      4) 참여

---

[1] Harvie M. Conn, "Indigenization,"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edited by A. Scott Moreau and Harold Wetland (Michigan: Baker Books, 2000), 481.

[2] Ken Gnanakan, ed., *Biblical Theology in Asia* (Bangalore: TBT, 1995), 20.

C. 선교의 상황

1) 증가하는 접근제한 지역

2) 기존의 접근제한 지역에서의 더욱 심해지는 외국인의 종교 관여에 대한 규제

3) 현지인 중심 사역에 대한 열린 문

4) 선교 주도국에서의 기독교 쇠퇴

2. 현지인 사역자의 개발

A. 예수님의 예[3]

1) 선택(눅 6:13)

2) 동거(막 3:14)

3) 순종(요 12:26)

4) 나눔(마 16:19; 요 15:11; 17:8, 14, 22, 24; 20:22)

5) 시범(눅 11:1-4; 10:26-27; 막 9:19-22)

6) 위임(마 4:19)

7) 감독(막 6:30; 9:17-29, 38-40; 눅 9:51-56; 10:17-24)

8) 사역(마 28:19-20)

[3] 로버트 콜먼, 홍성철 역, 주님의 전도계획(생명의 말씀사, 1994), 21-117.

B. 성경에서의 다른 예

1) 행 14:22-24 - 22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3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4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 1단계: 전도
   - 2단계: 제자 삼음
   - 3단계: 장로 선택　　현지인 중심 사역

2) 엡 4:11-12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C. 현지인 사역자의 선택

1) 자격
   a) 제자인가?

   b) 경건한 성품을 가졌나?

   c) 가정은 성경적인가?

   d)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e) 사역의 열매는 무엇인가?

2) 선발
   a) 확실히 초청하라

   b) 직임과 책임을 확실히 하라

   c) 사례 등 재정 부분을 확실히 하라

D. 동거

1) 사역 훈련

2) 삶의 나눔

E. 순종: 예수님에게

F. 나눔: 이론 훈련

1) 무엇을

2) 왜

3) 어떻게

a) 역사를 고려하라[4]

b) 문화를 고려하라

G. 시범: 현장 훈련

1) 시범을 보여주라

2) 일부에 참여하게 하라

3. 현지인 사역자에게 사역의 위임

A. 위임

1) 예수님의 예

a) 마 4:19 -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b) 마 28:19-20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4] 진 게츠, 권명달 역, 현대교회의 갱신(보이스사, 1985), 20-23.

2) 실제

a) 작은 부분부터 위임하라

b) 은사에 맞는 직무를 위임하라

B. 감독

1) 막 6:30 -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2) 막 9:38-40 -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3) 눅 10:17-20 -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C. 사역의 완전 위임

4. 사례

A. 접근제한지역

1) 베트남

2) 카타르와 인도

3) 네팔

B. 개방지역

1) 한국

2) 케냐

5. 결론

마 28:19-20 – 19.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A. 현지인 사역자의 개발과 사역 위임은 성경적이다.

B. 현지인 사역자의 개발과 사역 위임은 선교의 최종 목표이다.

C. 선교의 현상황은 현지인 중심 사역을 요구한다.

D. 능력이 아닌 성품을 고려하여 선택하라.

E.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훈련하고 감독하라.

F. 최선을 다했다면 현지인 사역자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위임하라.

2018·온누리선교컨설팅

주제 : 온누리를 넘어서

2018
온누리선교컨설팅

ONNURI·MISSION·CONSULTING

<선교사 추방의 사례와 대처방안>

- 도육환 목사 -

온누리선교컨설테이션 2018

TIM 선교사 추방의 사례와 대처 방안

두란노해외선교회

CONTENTS

01_ 현재 상황의 이해

02_ 중국의 사례들

03_ 기타 국가의 사례들

04_ TIM의 중국 사역 현황

05_ 향후 대처 방안

01

현재 상황의 이해

현재 상황의 이해

1. 2013년 3월 14일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 “중국의 꿈” 주창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
3. 종교정책의 변화 → “기독교의 중국화”

   가. 교회는 공산당의 사회주의 이념에 찬성한다.

   나. 교파가 없이 통일된 정부의 관리 방식에 따라 운영된다. 타 종교와도 공존한다.

   다. 인본주의적 삼자 신학을 견지한다. 교회는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사회적 기능을 감당한다.

01

현재 상황의 이해

종교 사무 조례

1. 2016년 9월 “종교 사무 조례 수정 초안” 발표
2. 2018년 2월 1일, “종교 사무 조례 수정안” 발효
   1. 허가 없이 대형 종교활동 금지 → 벌금
   2. 허가 없이 종교활동장소/종교학교 개설 금지 → 재산 몰수
   3. 허가 없이 해외 종교훈련/회의 참석 → 불법 재물 몰수 및 벌금
3.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실행
4. 중국 내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출국 본격화

02
중국의
사례

주요 사건들

✓2010년 3차 로잔대회(케이프타운), 선교중국 대회, 2030 중국 선교포럼 등 해외에서 진행하는 종교모임에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출국금지됨

✓2013-2015년 저장성, 장수성, 안훼이성의 3,800~4,000개 십자가 철거 사건과 외국 선교사들 추방 운동이 동시에 진행됨 (3년간 시범 운영됨)

✓2017년 5월 파키스탄 퀘타시에서 IS(이슬람국가)에 의해 중국인 선교사 명리스, 라신형이 순교를 당한 사건으로 인해 인터콥 출신 또는 연관되어 있는 선교사가 추방됨 (칭하이, 닝샤, 신장 등)

✓2018년 1월 13일 우루무치 거주 한국 선교사 가족 54명이 동시에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함.

02
중국의
사례

주요 사건들

✓2018년 1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모통이돌 목회자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6개 성 20 명 중 하남성 6명이 출국금지 통보를 받음.

✓2018년 1월 산동성 P가정교단 지도자들이 타 도시 출입금지 조치를 당함.

✓2018년 2월 허난성 저우커우시 시화현 19개 교회와 샤오야오 마을 교회의 예배를 중단할 것을 강요함.

✓2018년 2월 북경 주립신학교 학생과 교수 25명 중 3명이 교육 세미나 참석차 해외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출국금지 당함.

02
중국의
사례

주요 사건들

✓2018년 2월 천진시 가정교회 몇 개가 강제 철거됨.

✓2018년 3월 20일 조선족 목회자 모임에 참석한 각 지역 책임자 18명이 하루종일 공안국에서 가서 조사를 받음.

✓2018년 3월 신장 위구르족 자치주에서 외국인 추방이 가시화 됨. 외국인들의 비자 연장을 안 해 주고 있으며, 주거지를 외국인에서 임대해 주거나 임대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

02
중국의
사례

관련 기사들

✓2018년 6월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 중국 당국은 한국인 선교사의 중국내 기독교 전파활동이 활발하다고 보고 '한국 기독교 침투'에 대해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다 고 전했다.

✓2018년 6월 6일 한국일보 ; 중국에는 4,000명에 육박하는 한국인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00명 이상이 추방되었다는 추정치가 있으며, 특히 2017~2018년 사이에만 1,000명 이상의 한국인 선교사가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추방됐다는 통계도 있다.

02
중국의
사례

각 단체의 사례들

✓감리교
- 2017~2018년 총 16가정이 비자발적 출국조치

✓CCC
- 2013~2018년까지 총 16유닛이 비자발적 출국조치
- 특히, 2017년 3유닛, 2018년 6유닛 출국조치 됨

✓GMS(합동측 총회세계선교회)
- 2018년에만 25유닛이 비자발적 출국조치
- 그 중 8~9월에만 8가정이 출국조치 됨

02
중국의
사례

TIM의 사례들

- ✓ *총 26unit 사역중*
- ✓ *2013년 북경에서 2가정이 비자발적 출국 조치*
- ✓ *2018년 1월 우루무치에서 1가정이 출국 조치됨*
- ✓ *2018년 3월 닝샤, 신변의 위협을 느껴 긴급 귀국함*
- ✓ *2018년 5월 쓰촨성, 성도, 1가정 학교측의 비자거부*
- ✓ *2018년 8월 창사, 1가정 학교측 비자거부*
- ✓ *2018년 9월 란조우, 1가정 학교측 비자거부*

- ✓ *2018년 하반기에만 3가정이 비자발적 출국 조치 당함*

02

중국의 사례

최근의 특징

✓과거에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비자발적 출국”이 개별적으로 조용하게 이루어졌으나, 2017년 초, 연길에서 30여 명의 선교사 일시 출국조치, 2018년 1월 우루무치에서의 50여 명의 선교사 일시 출국조치 등, 최근에는 일망타진식으로 대규모로 출국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보다 2018년이 더 많고, 2018년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 갈수록 더 강한 출국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03

기타 국가의 사례

인도의 사례

✓강경 힌두 정권의 나렌드라 모디총리가 집권

✓2017년 여름부터 2018년 봄까지 3개 지역에서만 160여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비자발적 출국조치됨. 전체적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인도정부가 교회, 신학교, 선교센터 등 선교사들이 관련된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함.

✓2018년 5월 1명, 2018년 10월 1명의 TIM 인도선교사가 비자 캔슬을 당하고 입국거부 됨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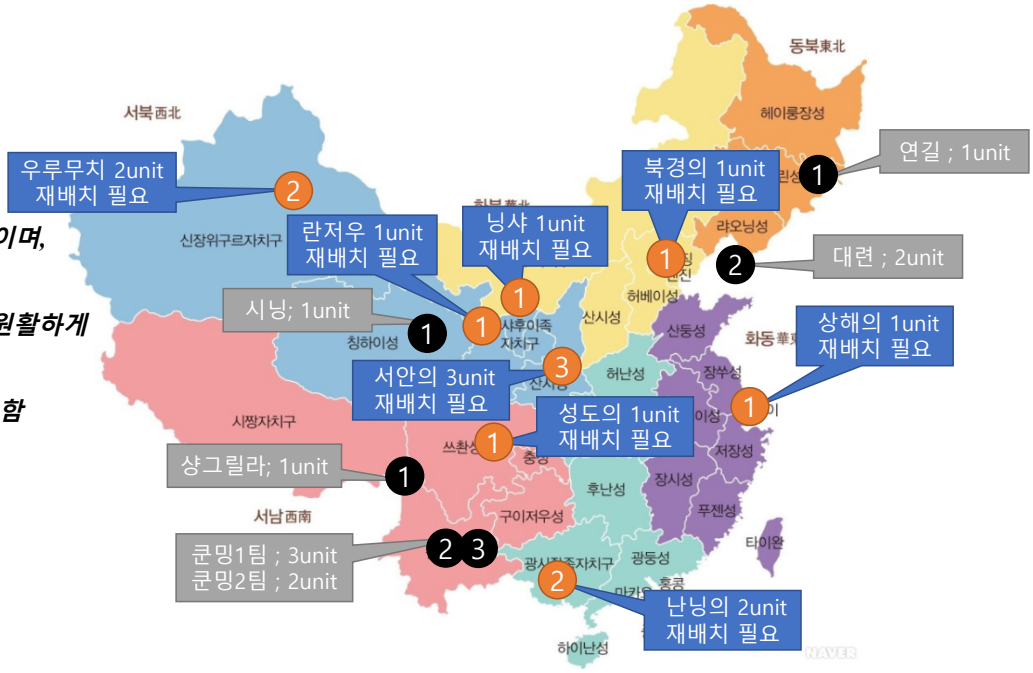
TIM의 중국 사역현황

TIM의 중국 사역 현황

✓현재 34명(22유닛)이 현장사역 중이며, 국내에 14명(7유닛)이 체류중임

✓3개의 ST(7유닛)와 3개의 유닛이 원활하게 사역 중이며

✓8개 지역, 12유닛의 재배치가 필요함



05

향후 대처방안

중국사역을 4가지로 진행

✓A(Adopted People) Type : 하니족, 위구르족, 회족, 티벳족, 치앙족, 동향족 등 소수민족 사역을 지속적으로 진행

✓B(Business Platform) Type : 쿤밍의 비즈니스, 대련의 문화원 등 합법적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 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대일, 큐티, 목회자 재교육, 지도자 양성 등 중국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교회 협력 사역을 지속

✓C(China for World Mission) Type : 온누리교회의 선교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삼자교회를 찾아 협력 가능성을 모색. MCC, 비타민C등 선교훈련, 선교지도자 양성 강화

✓D(Diaspora Ministry) Type : 국내 또는 제 3국의 중국인들이 본토선교, 디아스포라선교, 세계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

05

향후
대처방안
- 재배치

고신교단의 재배치 사례

✓서안 15년차 ; 1년 안식년, 2년차는 본부에서 365기도 담당자로 섬김, 3-5년차, 국내 외국인 사역부에서 중국 유학생사역 담당, 6년차에는 중국유학생교회 개척

✓우루무치 8년차 ; 3개월 재배치 준비 후, 남아공 한인교회의 중국인교회 개척 담당 목회자로 초빙

✓티베트 12년차 ; 네팔의 티베트사역팀으로 재배치 됨

✓서족사역 16년차 ; 본부 행정국장으로 4년 사역, 본국사역(안식년) 후 키르키즈에 재배치. 중국인 교회개척사역 및 중국교회파송선교사 훈련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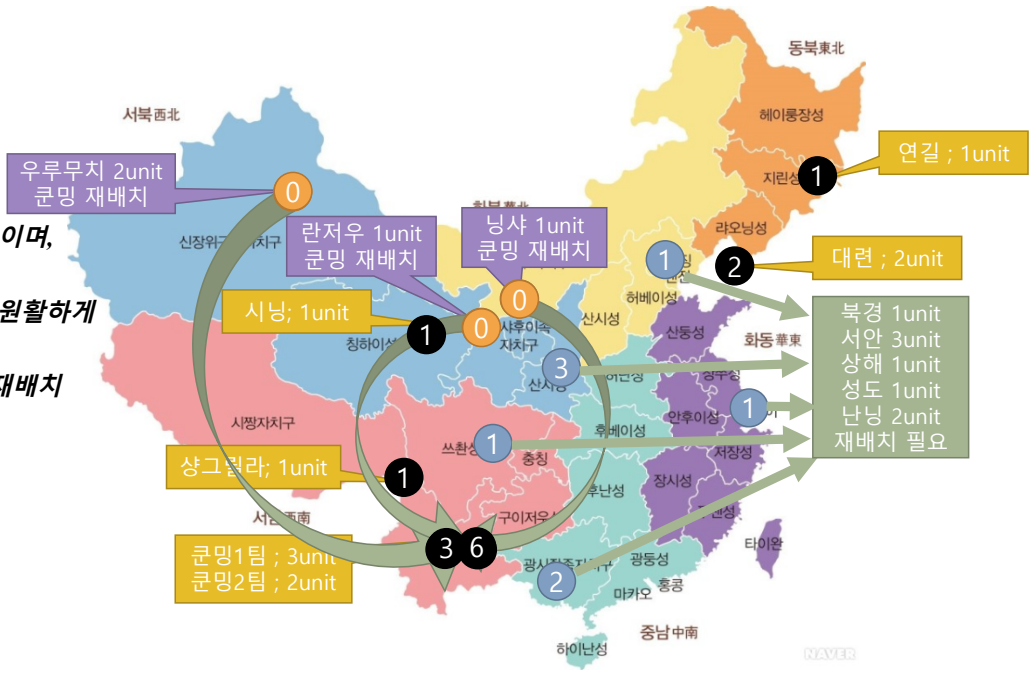
✓중국사역 27년차 ; 추방 전 자진철수, 제주노회와 협력하여 중국가정교회를 위한 신학원, 목회자를 위한 선교지도자 훈련과정에서 사역 중

05

향후
대처방안
- 재배치

TIM의 재배치 준비

- ✓ *현재 34명(22유닛)이 현장사역 중이며, 국내에 14명(7유닛)이 체류중임*
- ✓ *3개의 ST(7유닛)와 3개의 유닛이 원활하게 사역 중이며*
- ✓ *3개 지역, 4유닛을 쿤밍 1, 2팀에 재배치*
- ✓ *5개 지역, 8유닛의 재배치 필요*



05

향후
대처방안
- 재배치

TIM의 재배치 준비

✓비자발적 출국을 당한 5유닛과 그 외의 중국 내 12유닛

✓중국 내에서의 사역 ; A/B Type 사역

✓선교 중국을 위한 사역 ; C Type 사역(제주도 MCC 등)

✓국내 또는 제 3국에서의 중국인 사역 ; D Type 사역(아시아, 아프리카)

✓타국에서 타 언어권 사역

✓본부사역 ; 연구, 자료정리, 본부행정, 후배양성 등

로잔 언약

9. 전도의 긴박성

인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27억 이상의 인구가 아직도 복음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토록 많은 사람을 아직도 등한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기회를 얻는 것이 목표다. 희생 없이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13. 자유와 핍박

교회가 간섭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평화와 정의와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이 모든 정부에게 지정하신 의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유엔 인권선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종교를 믿으며 전파할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의에 대항하고 복음에 충성하기를 힘쓸 것이다. 핍박이 없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2018·온누리선교컨설팅

주제 : 온누리를 넘어서

2018
온누리선교컨설팅

ONNURI·MISSION·CONSULTING

<선교사 재배치>

- 넬슨 제닝스 박사 -

What Are the Next Steps for OC Missionaries Who Have Been, but Currently Are Not, Serving in China?
중국에서 섬겼지만 현재는 섬기지 않는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을 위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J. Nelson Jennings
OC Mission Pastor, Consultant, International Liaison
OC Mission Consuting Forum
November 2018
넬스 제닝스
온누리교회 선교 목**사**, 고문, 국제 연락 담당
온누리교회 선교 컨설팅 포럼
2018 년 11 월

Government leaders sometimes tighten control over select groups who are subject to their authority. When that happens, those groups face extra harassment, they might suffer financial or physical harm, and they could be displaced or even expelled. Targeted groups can be of a certain ethnicity, socio-economic strata, religious affiliation, or some mixture of such categories. Government suppression can seem arbitrary with hidden motives, or there can be clear reasons that are evident to all concerned. In all cases, government authorities have access to armed enforcement of the suppression and control they have decided to implement.
정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아래 있는 특정집단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에 그 집단들은 추가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재정적인 손해 혹은 육체적인 해를 입기도 하고 이동되거나 심지어는 추방되기도 한다. 표적이 되는 집단은 어떤 인종, 사회-경제적 계층, 종교적인 그룹 혹은 여러 범주들이 혼합된 집단이기도 하다. 정부의 억압은 숨겨진 동기와 함께 임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분명하게 뚜렷한 이유들이 있을 때도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정부 당국은 그들이 시행하기로 결정한 억압과 통제를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Those who are subject to oppressive government measures can comply, ignore or otherwise seek to avoid those measures, or actively resist. Some targets of suppression are connected with outside entities that advise or even dictate what to do. To various degrees, sacrifice and suffering are inherent to whatever approach targeted people take. Some measure of trauma will be experienced, be it physical, emotional, psychological, financial, relational, or otherwise. Viewed from a Christian point of view, God walks with those who suffer but does not promise to shield Christians from painful and traumatic experiences.
억압적인 정부의 조치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조치들에 대해 순응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찾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게 된다. 일부의 억압 대상들은 어떻게 할지를 조언하거나 심지어는 지시하는 외부의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접근을 시도하더라도 거기에는 다양한 희생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게 되거나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 재정적, 관계적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충격을 경험할 수가 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만 기독교인들을 심한 고통과 충격적인 경험들로부터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는다.

In this presentation, we are specifically discussing the situations of OC Missionaries that have been serving in China, but currently are not serving there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has decided that it does not want these missionaries (and others like them) there. Information I have received is that a total of six missionary units who used to serve in China are currently staying in Korea. Of those six units, apparently only one (currently recuperating at TIM House) has been expelled from China. The other five units are staying in Korea for various reasons, e.g., visa extension, health issues, sabbatical. One couple has just moved to Jeju (in late October) to help out with the MCC project. They reported that they received a warning from a Chinese public security officer about their activities in China. To make possible their future visit to China, they are scheduled to serve in Korea for now.
본 발표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사역해왔지만 현재는 중국정부가 이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처럼 섬겼던 다른 이들) 을 원치 않는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서 섬기지 않는 온누리교회의 선교사들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내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섬기던 총 여섯 유닛의 선교사들이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다. 그 여섯 유닛 중에 오직 한 유닛(현재 팀하우스에서 쉬고 있는)만이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고 다른 다섯 유닛은 비자 연장, 건강상의 문제, 안식년 등의 이유들로 인해 한국에 머물고 있다. 한 유닛은 MCC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이제 막 (10 월 말에) 제주도로 이사했다. 그들은 중국에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공안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앞으로 다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당분간은 한국에서 섬길 예정이다.

What, then, should be the next steps for these missionaries and others in their situation? What does God desire for them personally and for their ministries - both what they have left behind and what lies ahead? Are there wider implications of how the missionaries themselves, as well as how OC mission departments, handle their situations, e.g., unforeseen and unintended political ramifications? We face here a set of complex and intertwined questions.
그렇다면 이들 선교사들과 다른 이들이 각자의 상황가운데 취해야 할 다음 단계의 조치는 무엇일까? 그들 개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사역 -그들이 남기고 돌아온 그리고 앞으로 그들 앞에 놓인 –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선교사들 스스로와 온누리교회 선교 부서들이 예기치 못한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파문 등의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 지에 대한 좀 더 폭넓은 함축적 의미가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뒤얽혀있는 질문들을 마주한다.

History 역사

To gain a more panoramic perspective on our current situation, it is helpful to consider perhaps the most directly applicable historical precedent, namely the expulsion and withdrawal from China of Christian missionaries in the mid-twentieth century. With the Mao Zedong-led Communist victory in 1949, all "foreign imperialists" were expelled, including expatriate missionaries. Such a turn of events was a totally unforeseen and devastating blow to the worldwide Christian missions movement. Unthinkably, China - the crown jewel of generations of missions efforts - had apparently been lost to the Communists.
현재의 상황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20 세기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아마도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할 만한 역사적 선례, 즉 중국에서의 기독교 선교사 추방과 철수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949 년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공산주의가 승리하면서 외국인 선교사를 포함해서 모든 “외국인 제국주의자들”은 추방되었다. 그러한 사태 전환은 전세계 기독교 선교 운동에 완전한 예측불허의 엄청난 충격을 주는 타격을 가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세대에 걸친 선교적 노력의 꽃인 중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패배를 당한 것으로 보였다.

In the specific case of the China Inland Mission, the CIM leadership in Shanghai claimed that "only God, not the CCP [Chinese Communist Party], could force the mission to close its doors" (Miller 2015: 159). CIM's determination was buttressed by its belief that the indigenous Chinese Christians would not be able to sustain themselves in evangelism, self-governance, and resisting government pressure (Miller 2015: 151-156). The added acclaim and encouragement that CIM's courageous stance had produced from U.S. and U.K. supporters was surely further motivation for staying in China. Finally, however, increased Chinese government monitoring, embarrassment and dangers to Chinese Christians (So 2016: 41), and the intensifying Korean War (including the entrance of Chinese troops in 1951) compelled the CIM leadership to withdraw its remaining missionaries from their untenable stays in China.
중국 내륙 선교(CIM)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상하이의 CIM 리더십은 “CCP(중국 공산당)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교의 문을 닫을 수 있다”(밀러 2015 년: 159 쪽)고 주장했다. CIM 의 결의는 중국에 살던 중국인 기독교인들은 전도, 자치와 중국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는 데 있어서 버티지 못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밀러 2015 년: 151-156 쪽). 미국과 영국의 후원자들로부터 발생된 CIM 의 용기있는 태도는 분명히 중국에서 더 머물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 곤란, 위험은 증가되었고(소 2016: 41 쪽), (1951 년 중국 군대의 가담을 포함하여) 심해지는 한국 전쟁으로 CIM 리더십은 중국에서 더 이상 보호가 불가능한 남은 선교사들을 철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What makes the CIM case (and others like it) particularly relevant to OC's present situation is CIM's decision process for redeploying its missionaries. There was some confusion at CIM HQ in Shanghai leading into the decision process, in large part due to an absent General Director, who was sick in Australia. "Meanwhile, any CIM missionaries who left China or their station, were considered to have resigned on the spot, allowances were terminated and they were left to pay their own fare home" (Huntley 2007: 13). What brought a measure of resolution were two significant meetings in 1951.
CIM 의 사례(그리고 그와 비슷한 경우들)가 특히 온누리교회의 현재 상황과 관련이 있게 만드는 것은 선교사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CIM 의 결정 과정이다. 상하이에 있는 CIM 본부가 결정하는 과정가운데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그것은 본부를 지휘하는 본부장이 병으로 호주에 있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한편, 중국이나 자신들의 사역지를 떠난 CIM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사임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후원금이 끊겼으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용도 스스로 지불해야 했다 (헌틀레이 2007 년: 13 쪽). 1951 년에 열린 두 번의 중대한 모임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The first gathering, which was of "the most senior CIM personnel across the world," took place over one week, February 10-17, in Balomara, near Melbourne, Australia (Huntley 2007: 13). The withdrawal of CIM missionaries from China was confirmed, although there was a difference of opinion as to whether the withdrawal constituted an end to CIM itself or an intermediate pause until China reopened to missionaries. In addition, in a hotel in Singapore while changing

ships en route to Australia, CMI's China Director, John Sinton, was visited by local Chinese ministers. These ministers gave "a specific and warm invitation" to Mandarin-fluent CIM missionaries to redeploy to Singapore and nearby Malaya, thus instigating discussions at the Balomara meeting about investigating openings throughout Southeast Asia.
첫 번째 모임은 “세계각지에서 사역하는 CIM 의 최고위급 스텝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호주 멜번 인근의 발로마라에서 2 월 10 일~17 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렸다(2007 년 헌틀레이: 13 쪽). 중국에서 CIM 선교사들을 철수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 철수 조치가 CIM 에게 중국선교의 종료를 의미하는 아니면 중국이 선교사들을 다시 받아들일 때까지 일시적으로 선교를 중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또한 호주로 가는 길에 배를 갈아타는 동안 상하이에 머물던 한 호텔에서 CMI 의 중국 담당 책임자 존 신톤은 중국 장관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북경어가 유창한 선교사들을 상하이와 말레이반도 부근으로 재배치하는 “구체적이며 따뜻한 초대”를 하면서 동남 아시아에서의 시작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발로마라 모임에서 토의할 것을 부추겼다.

The second meeting consisted of an even wider span of CIM leadership and took place over the last two weeks of November in Bournemouth, England. In addition to working through sensitive issues regarding leadership responsibilities in crisis situations, and "With all thought of returning to China behind them," those present "grappled with the now-completed surveys [of ministry opportunities outside China] and decided to enter Malaya, Philippines, Japan and Indonesia, with other potential fields to be studied and if possible, surveyed" (Huntley 2007: 13). It is relevant to note that missionaries were redeployed to several Cold War “hot spots,” with hopes that overseas Chinese could be persuaded toward anti-Communism. Also, prayers by supporters back home included pleas for the containment of Communism’s spread (Miller 2015: 205-207).
두번째 모임의 참가자는 더 폭넓은 지역의 CIM 리더십으로 구성되어 잉글랜드의 본머스에서 11 월에 마지막 두 주 동안 열렸다.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의 책임에 대한 민감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뤄나가면서 “위기 상황의 중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참석자들은 “[중국 외부에서 가능한 사역의 기회들에 대한] 이미 완성된 조사들을 붙들고 씨름했고 말레이반도, 필리핀, 일본과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 사역의 잠재성이 있는 곳을 연구하기로 결정했고, 가능하다면 조사했다”(헌틀레이 2007 년: 13 쪽). 해외 거주 중국인들이 반공산주의로 설득될 수 있다는 희망속에서 선교사들이 몇 몇의 냉전시대의 “핫 스팟(분쟁 지대)”으로 재배치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또한 본국에서 기도하는 후원자들이 드리는 기도에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간청이 포함됐다 (밀러 2015 년: 205-207 쪽).

The next year, in 1952, CIM officially changed its name in Asia to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of the CIM." The term "Overseas" referred to overseas Chinese, not to the missionaries who traveled “over the seas.” Also, the older name CIM was retained in the sending home countries until the Centenary in l965 (Huntley 2007: 14).
이듬해인 1952 년에 CIM 은 공식적으로 아시아에서의 명칭을 “CIM 의 해외 선교사 협회(OMF)”로 변경했다. “해외”라는 용어는 “바다를 건너” 여행하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의미했다. 또한 원래의 명칭 CIM 은 20 세기가 끝날 때 까지는 파송국 내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헌틀레이 2007 년: 14 쪽).

It is interesting how both the redeployed missionaries and the newly sent-out OMF missionaries fit into their new ministry settings. First, the newly reconstituted OMF mission organization needed to coordinate with other missions that were more established in the countries where they were going, since OMF was a newcomer to all of these places outside of China (Huntley 2007: 14). OMF missionaries needed assistance in many practical ways, e.g., in procuring visas and accommodations, as well as in coordinating strategy and placement. Second, OMF missionaries gravitated toward unreached and minority peoples that other missions and indigenous churches were not serving.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hile initially assuming the missionaries would focus on Chinese living throughout Asia, that ministries among non-Chinese soon took precedence. Also, the OMF missionaries soon added their own voices to other expatriates' criticisms of indigenous churches as "weak" and "immature." The net result by the late 1950s was a primary devotion of OMF missionaries to evangelism and church-planting in their various places of service, with smaller numbers given to discipleship and medical work (Miller 2015: 209-217).
재배치된 선교사들과 새로 파송된 OMF 선교사들이 모두 새로운 사역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흥미롭다. 첫째로, 새롭게 구성된 OMF 선교 기관은 중국 외부의 지역에서는 신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들어가는 나라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타 선교기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었다 (허틀레이 2007 년: 14 쪽). OMF 선교사들은 많은 부분 –예를 들어 비자와 숙소를 얻고 전략과 배치를 조직화하는 데 있어 도움이 필요했다. 둘째로, OMF 선교사들은 타 선교 기관과 현지 교회들이 섬기고 있지 않은 미전도 혹은 소수 종족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선교사들이 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중국인들에게 집중했을 것으로 짐작하겠지만 비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이 먼저 일어난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OMF 선교사들은 이내 현지의 교회들이 "약하고" "미성숙하다"는 다른 외국인 거주자들의 비평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했다. 1950 년대 말경에 나온 최종 결과는 OMF 선교사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전도와 교회 개척에 주로 헌신했고 제자화나 의료사역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수는 비교적 적었다(밀러 2015 년: 209-217 쪽).

It is also relevant to note the additional roles that CIM's former China missionaries played among their supporting bases and surrounding communities, particularly in the U.K. and the U.S. For one, these missionaries served as eagerly sought after spokespeople about life in the newly transformed Communist China. As such, the missionaries served as rare and sometimes unique channels of information about Communist China. The information these missionaries conveyed was, not surprisingly, uniformly critical and negative about Communism. Regarding the Chinese churches, missionaries spoke in various terms, sometimes pessimistic about the weakness of Chinese Christians but at other times optimistic about the durability and strength of the "invisible" or "underground" church in China (Miller 2015: 182-205).
CIM 의 예전의 중국 선교사들이 그들의 후원 기지와 주변의 공동체, 특히 영국과 미국에 있는 곳에서 부가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선교사들은 새롭게 변화된 공산주의 중국에서의 삶에 대해 말해 줄 대변인들을 열심히 찾았다. 그렇게 그 선교사들은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드물고 때로는 독특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 선교사들이 전달한 정보는 공산주의에 대해 한결같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놀랍지 않은 사실이었다. 중국의 교회들에 대해서 선교사들은 다양한 용어로 이야기 했다.

때로는 중국 기독교인들의 연약함에 대해 비관적이기도 했지만 다른 경우에는 중곡의 "보이지 않는" 혹은 "지하의" 교회의 지속성과 강점에 대해 낙관적이기도 했다(밀러 2015 년: 205 쪽).

One final observation about the CIM-to-OMF transition is the relative lack of what today we call "member care." Retaining missionary personnel was a high priority (Miller 2015: 210), but how much pastoral care was given to expelled missionaries' emotional and other needs is unclear. (Also, more research would be needed to discern how particular assignments were decided.)
CIM 에서 OMF 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내가 마지막으로 관찰한 것은 오늘날 "멤버 케어"라고 불리는 것의 상대적 부족함에 대한 것이다. 선교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높은 우선 순위를 갖는 일이었지만 (밀러 2015: 210 쪽), 추방된 선교사들의 감정적, 기타 필요를 채워주는데 목회적 돌봄이 얼마나 허락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그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임무들이 주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더 많은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OC Missionaries and OC Mission Leadership
온누리교회 선교사들 그리고 온누리교회 선교 리더십

I do not want to be presumptuous and offer specific recommendations on what next steps OC and its displaced missionaries should take. I hope looking at the CIM-OMF historical precedent is helpful for increasing perspective and awareness of what the important questions are. I am also anticipating how next June's KGMLF gathering on "Missionary Mental Health" will contribute some valuable and relevant insights.
나는 온누리교회와 그의 추방된 선교사들이 취해야 할 다음 단계에 대해 주제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언하고 싶지 않다. 다만 CIM-OMF 의 역사적 선례를 살펴 보는 것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폭넓은 관점과 인식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내년 6 월에 "선교사 정신 건강"에 대한 주제를 다룰 KGMLF (한국, 해외 선교 지도자 포럼) 모임에서 가치 있고 연관성 있는 통찰력들을 얻게 되길 기대한다.

My thoughts about at least some of the important questions - for both the missionaries and OC mission leadership - are organized below into specific categories and are listed in bullet-point format. (Topics marked by "*" would especially be helped by counseling.)
선교사와 온누리교회 선교 리더십 모두를 위한 중요한 질문들 중 일부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아래 구체적인 범주로 나뉘어 정리되어 항목으로 나열돼 있다. (별표로 표시된 주제들은 특별히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Pray and Praise 기도하고 찬양하라
    - Acknowledge God's unchanging greatness, faithfulness, and goodness
      하나님의 변치 않는 위대함, 신실함, 그리고 선하심을 인정하라
    - Reaffirm our utter dependance on God's faithfulness and provision
      하나님의 신실함과 공급에 (우리의) 순전한 의존을 재확인하라
    - Intercede for Christians and churches in China
      중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을 위한 중보하라
    - Recommit to follow the Spirit's guidance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재헌신하라

- Rest 쉬어라
    - Physical 육체적
    - Emotional 감정적
    - Spiritual 영적
    - Relational 관계적

- * Reflect 돌아보라
    - On God's leading prior to going to China
      중국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 On encouragements and discouragements in China
      중국에서의 격려와 낙심에 대해
    - On lessons learned through living and serving in China
      중국에서 살고 섬기는 동안 배운 교훈에 대해
    - On the departure/expulsion process
      출국/추방된 과정에 대해

- Remember 기억하라
    - 1949-1951 and God's subsequent work of significant Christian growth in China
      1949 년부터 1951 년 사이 그리고 중국에서의 상당한 기독교 성장에 뒤이은 하나님의 역사
    - All of Christian mission history
      기독교 선교 역사에 대한 모든 것
    - God's good work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역사

- Reexamine 재검토하라
    - Political convictions - especially about Chin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정치적 소신, 특히 중국, 북한, 그리고 남한에 대해
    - Political messages conveyed to supporters
      후원자들에게 전달되는 정치적 메시지
    - Other points of change and growth from living and serving in China
      중국에서 살고 섬기면서 갖게 된 변화와 성장

- * Reassess 재평가하라
    - Gifts 은사
    - Shortcomings 단점
    - Best contributions to missions work 선교사역에 대한 최고의 기여

- Regroup 재편성하라

    - Overall OC mission priorities 전반적인 온누리교회의 선교 우선순위들
    - Particular ministry possibilities 특정한 사역 가능성들
    - Prayerful consideration 기도하면서 검토
    - Decide together on next ministry 다음 사역을 함께 결정하라
        - Who initiates? 누가 주도할까?
        - Who makes the final decision / discerns the Spirit's guidance? 누가 최종결정을 내릴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까?
    - Prepare and train 준비하고 훈련하라

- Redeploy 재배치하라

    - Ensure prayer and financial support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을 보장하라
    - Make logistical preparations 실행 계획을 준비하라
    - Set departure ceremonies and travel plans 파송식 및 여행 계획을 세워라

God is faithful and good - all the time!
하나님은 신실하고 선하시다 – 언제나!

References

Huntley, David (2007). "The Transition from China Inland Mission to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MISSION ROUND TABLE - The Occasional Bulletin of OMF Mission Research*. Vol.3 No.2: 12-17. file:///home/chronos/u-32fe10742969045ca10d0d6d17b570a787575bee/Downloads/MRT-3.2-Dec-2007-History-in-East-Asia.pdf.

Miller, Anthony J. (2015). "Pioneers in Exile: The China Inland Mission and Missionary Mobility in China and Southeast Asia, 1943-1989" *Theses and Dissertations--History*, 26. https://uknowledge.uky.edu/history_etds/26.

So, Wing Yui (2016). "A Passion for a Greater Vision—the Role of Leslie T. Lyall in the History of the China Inland Mission/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https://sosir.whc.org.hk/sites/sosir.whc.org.hk/files/attachments/A%20Passion%20for%20a%20Greater%20Vision.pdf [cf. http://hub.hku.hk/handle/10722/235867].

번역: 임선아 목사 (온누리 선교연구소)

2018·온누리선교컨설팅

주제 : 온누리를 넘어서

2018
온누리선교컨설팅

ONNURI·MISSION·CONSULTING

<중국교회에 부는 새로운 도전과 선교과제>

- 렴문홍 목사 -

중국선교 방향에 대한 소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19-20절

비전

땅끝까지 ACTS29 예수 바보 행전

목적

중국교회와 선교적동역자가 되어 협력하여 함께 땅끝까지 ACTS29 예수 바보행전을 써내려가는것이다.

현재 중국교회의 상황

1. 중국정부의 선교사 추방

2013년 시진핑이 중국가주석이 되면서 간헐적으로 진행하던 선교사에 대한 추방이 대대적으로 시작하였으며 특히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한국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에 대한 추방이 진행되고 있다.

2. 중국현지 교회에 대한 핍박 (첨부 파일 1)

시진핑체제하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선교사의 추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교회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기독교를 철저히 중국공산당의 통치 아래 그리고 당의 통치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중국정부에서는 이것을 기독교의 중국화라고 말한다.

2011년 9월 국가 종교사무국은 제일회의 "기독교계애국인사"회의에서 국가 종교국, 공안부, 민정부에서 연합하여 비밀문건을 하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세 단계로 나누어 전면적으로 중국가정교회를 제거하는 것이다(중국화하는 것이다).

첫번째단계, 2012년 1월부터 6월말 전국각지역의 가정교회에 대해 융단식(전면적인)의 조사를 실시

두번째 단계 , 2~3년의 시간을 통하여 대표적인 가정교회에 대한 집중 척결

세번째 단계, 10년의 시간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가정교회를 척결,

지금은 이 두번째의 단계의 마지막 단계 및 세번째 단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 중국교회의 성장과 변화

1) 중국교회의 부흥

- 70-90년대. 농촌교회의 부흥
- 2000-현재. 도시신흥교회의 부흥, 2011년 북경 망대교회(김천명목사)에 대한 핍박은 중국 도시가정교회의 완전 부상을 상징한다.
- 이 두 시기를 거쳐 중국교회는 크나큰 성장을 가져왔으며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양적성장에 치우치고 있다.

2) 변화기를 겪는 중국교회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중국교회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도 급격한 변화기를 겪고있다. 주로 세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데

- 전통가정교회에서 도시 교회로
- 숨어서 예배드리는데서 공개적인 집회로
- 집회식 목회에서 목양식 목회로 전환

중국교회의 필요와 한국교회의 역할

지금 중국의 상황은 한국교회의 대중국 선교에 있어서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 한국교회에게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신다. 이를 위해 우리는 중국교회가 무엇을 필요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 보아야 한다.

중국교회의 필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중국가정교회의 2030 비전에서 알 수 있다. 2030비전이란 중국가정교회가 첫단계로 2030년까지 2만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중국교회가 선교 중국으로 가기 위해 우선 1809년 모리슨 부터 1949년 새 중국이 성립하여 모든 선교사가 추방될때까지 통계상에 2만여명의 선교사가 중국에 파송되었 기때문에 우선 2만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것이 중국선교의 시작이라고 선포하였다.) 그 다음으로 선교적 중국으로 나아가는 비전이다.

그런데 현재 중국교회의 현 상황과 능력으로 2만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중국교회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2030의 비전 및 선교중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중국가정교회 2030연합회에서 선포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교회는 MC0-MC4까지의 다섯단계의 실천 전략을 내 세웠다.

MC0 선교중국의 신학과 전략
MC1 선교 중국을 위해 중국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
MC2 중국내 소수민족 선교
MC3 해외에 있는 중국유학생과 디아스포라 선교(신중국을 배경으로 한 디아스포라)
MC4 타문화 선교

이 다섯개 단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MC1이라고 중국교회 리더십들은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이를 공감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는것이 바로 교회가 선교적 비전이 있고 전인적으로 건강한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는것이다. 그동안 양적성장을 겪은 중국교회는 더이상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성장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세영역에서의 변화와 도움이 절실하다.

1 목회자의 성장

- 목회 비전, 목회소양, 설교, 목회능력의 향상
- 중국내 목화자의 멘토 부족

2 교회 체질개선

- 교회론과 목회철학 확립
- 집회식에서 목양식으로의 전환
- 양육시스템 구축
- 중국내 건강한 모델교회를 세워 지역교회에 실제적 방향 제시

3 선교중국으로의 성장

- 선교중국이 되기위해 교회성장이 필요하며 선교적 교회로 이끌어야 할 선교적 경험이 있는 인도자와 동역자가 필요함

- 선교교육, 선교기관 세우고 운영, 선교동원, 선교훈련

이것은 단순히 몇개의 양육 과목이나 사역을 가르켜 준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중국교회는 1949년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교회는 단절된 상태이므로 현재 중국교회는 자체에서 소위 아버지가 없는 세대라고 한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좋은 멘토, 좋은 인도자, 좋은 모델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중국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목회적 모델과 멘토가 될 만한 교회이다. 이에 대하여 첨부 파일2의 유퉁수목사님의 편지에서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전략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는 중국교회의 필요를 알고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을 해 왔다.

1.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역

첫번째, 교류 사역

- 2009년 부터 시작된 비타민 사역을 통하여 1500여명의 중국가정교회 및 삼자교회 리더십들이 온누리교회를 방문
- 2009년 부터 중국현지교회를 방문 교류를 진행

두번째, 찬양사역

- 2009년 부터 대학청년부 예배사역팀이 여러차례 중국온주 및 타 지역으로 예배컨퍼런스 지원
- 전주대 경배와 찬양 학과를 통하여 많은 예배 사역자 배출

세번째, 양육사역

- 큐티 사역: 생명의 삶 출판 및 보급
- 일대일 사역: 아웃리치를 통해 중국현지교회에 일대일 사역을 지원
- BEE 사역: BEE사역팀을 중국교회에 소개, 현재 중국교회로 이양
- 여러 사역: 아버지학교, 어머니 학교는 이미 중국교회로 이양

네번째, 선교사역

- 중국현지 선교대회 진행: 온주지역에서 5회 진행
- 제주 MCC 훈련센터 준비

2. 앞으로의 진행해야 할 방향과 사역

중국교회의 현재 상황과 필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진행해 왔던 사역들을 종합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제안한다.

첫번째 중국교회 성장 지원 (첨부 파일 3)

지금까지 해왔던 교류사역, 찬양사역, 양육사역, 선교사역을 강화해야 한다.

- 계획적: 최소한 2030년 까지 구체적인 목표와 사역계획을 세워 진행한다.
- 조직적: 전문 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팀 구성 및 운영.
- 선택과 집중:
  - 협력 교회를 선정한다. 이는 몇몇 특정교회를 선정하여 모델 교회를 만들어 주는 것을 통하여 주변교회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다.
  - 목회자 훈련에 집중. 목회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

- 지속적: 지속적으로 섬겨 주는것

두번째 역파송 선교 (첨부 파일4)

- 한국에서 더 많은 양질의 청년목회자를 양성하여 중국으로 역파송하여 성소재지 도시마다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움
- 역파송을 위해 반드시 온누리화, 목회소양, 목회기능 훈련을 해야 한다.
  - 2014년 부터 시작한 이 사역은 이미 중국에서 4개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세번째는 차이스타 사역

- 해외에 있는 중국유학생들의 복음화의 부흥회를 통하여 중국복음화를 이룬다.
  - 매년 한국에서 남부 (경남,경북)중심으로 20여교회 400여명, 북부(서울, 경기도, 충남충북,전남전북) 60여교회 1000여명이 모여서 수련회 진행
  -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받아 신학교로 진학하고 선교사로 헌신
- 한국을 넘어서 전세계의 유학생의 복음화와 부흥을 일으킨다.
  - 현재 매년마다 50여만명의 중국유학생들이 세계 각국으로 나가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 사역이 너무나도 미약하다. 한국을 넘어서 전세계의 중국유학생의 복음의 불씨를 지피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다.
- 코스타가 지난 30년동안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선교에 가져다 준 축복의 열매를 차이스타를 통하여 중국과 열방에 임하게 한다.

중국교회 핍박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정부의 외국 선교사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추방이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 자체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대대적으로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중국교회 핍박 상황

1) 삼자교회(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회)

- 예배당에 감시 카메라 설치
- 인사, 재정, 행정, 심지어 설교내용마저 통제 받음
- 국기를 걸고, 예배때 국가를 불러야 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낭송해야 함(심각한 곳은 시진핑사진과 모택동 사진을 붙여야 한다)
- 지금 일부 지역 교회에서 시작하였지만 이미 지시는 모든 지역 삼자교회에 내려지고 앞으로 모든 삼자교회에서 시행해야 함

2) 가정교회(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회)

- 십자가 철거

  * 1 차 2014-2016 년 중국절강성 2000 여개 이상의 십자가 철거

  * 2 차 2017-2018 년 현재 하나님성 4000 여개의 교회 십자가 철거

  * 안휘성, 강소성 등 많은 지역의 십자가도 철거되었지만 통계가 되지 않음

- 교회 건물 강제 철거

  * 1 차 2014-2016 년 중국절강성 최소 50 개이상의 교회가 강제 철거당함

* 2 차 2017-2018 년 현재까지 하남성을 중심으로 수백개의 교회가 강제 철거 당함

* 이 과정중우 북경, 청두, 상해 등 대도시의 대표성있는 도시 가정교회에 대한 집중 타격.

2018 년 9 월 16 일 제일큰 도시 가정교회 북경 시온교회 강제 계약 해약 (계약이 끝나지 않았지만 더이상 사용 불가)

2018 년 5 월 중국 청두 쳐우즈푸교회 강제 해약 및 철거

타지역 여러 교회도 강제 해약 철거

- 목회자 리더십 구금, 감시, 사유재산 동결

* 1 차 때 적어도 500 명이상의 목회자 리더십과 성도가 구금당함

* 2 차 때 아직 통계가 되지 않음

2011 년 부터 지금까지 북경 서우왕교회 김천명 목사님 가택 연금

김명일 목사와 교회 리더십도 교회 조사 반복, 감시당함

타 지역 여러 교회 목회자 및 장로 리더십

3) 주일학교 및 대학생 사역 전면 폐쇄

- 삼자교회든 가정교회는 18 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전도나 신앙 교육을 할 수 없다.

- 모든 교회 주일 학교 폐쇄

- 절강성에서는 학교에서 신앙 현황 조사

- 10 월부터 전국 모든 교회 대학생 사역 교회 폐쇄 당함

4) 공무원 그룹에서 기독교인 소멸

- 여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교사, 의사, 정부기관에 대한 신앙조사를

통하여 기독교신앙을 포기하게 함.

2. 앞으로의 핍박 방향

중국정부의 이같은 기독교에 대한 전면적인 핍박은 기독교 중국화를 위해서이다. 기독교 중국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5 진 5 화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공산당 통치의 충성 조직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모든 교회는 삼자란 정부가 허락한 조직에 가입해야 하며 중국에는 오직 한가지 교회조직 즉 3 자교회만 존재할 것이다.

2018 년말까지 삼자교회에 대한 통제가 끝나고, 일부 지역 기독교가 부흥한 절강성과 하남성 지역, 그리고 일부 대도시의 대표적인 가정교회에 대한 탄압이 성공하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전면적으로 이루어 질것이다.

일차적으로 모든 가정교회를 등록 혹은 삼자교회로 편입

이차적으로 삼자교회와 같은 통제를 받게 할 것임

이와 같은 가정교회에 대하 핍박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중국정부는 2011년 9월 국가 종교사무국은 제일회의 “기독교계애국인사” 회의에서 국가 종교국, 공안부, 민정부에서 연합하여 비밀문건을 하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세 단계로 나누어 전면적으로 중국가정교회를 제거하는 것이다.

첫번째단계, 2012 년 1 월부터 6 월말 전국각지역의 가정교회에 대해

융단식(전면적인) 조사를 실시

두번째 단계, 2~3 년의 시간을 통하여 대표적인 가정교회에 대한 집중 척결

세번째 단계, 10 년의 시간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가정교회를 척결,

지금은 이 두번째의 단계의 마지막 단계 및 세번째 단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됨

3. 왜 시진핑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것일까?

겉으로 보면 기독교에 대한 중국화(첨부파일 참조)이고 종교의 법치화(종교조례 참조)이지만 진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시진핑정부의 안전감의 부재 : 중국기독교 인구가 공산당원 수를 초과하였기 때문으로 기독교는 중국에서 공산당이 통제하지 못하는 제일 큰 사회조직이다.

두번째, 의식구조의 통제 : 시진핑이 등단할 때 중국공산당의 맑스레닌주의 의식은 이미 파산한 상태이다. 때문에 시진핑은 전통 종교신앙과 문화기치에서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불교, 유교, 도교 등을 모두 당에 충성하끔 교회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기독교 특히 가정교회는 중국의 종교 중 제일 교화가 되지 않는 종교라고 생각한다.

세번째, 시진핑의 자아 신격화: 중국고대황제들은 그 누구도 “政统“(정치 통치)와 ”道 统“ (도덕 통치)를 한손에 쥔 황제가 없다. 대부분 역사시기에 “道统“에 대한 해석권은 일정한 정도에서 모두 사대부들의

손에 있었다. 근대 중국역사에 보면 이를 싫현한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모택동이다. “위대한 导师(인도자), 위대한 수령, 위대한 统帅(통수), 위대한 舵手 (키잡이)” 이것이 모택동이 가장 좋하하는 본인에 대한 “尊号“ (존호) 이다. 이 또한 시진핑이 가장 기대하는 역사적 지위이다.

4. 가정교회는 어디로 갈것인가?

현재 많은 중국가정교회 리더십과의 대화를 통하여 대부분 가정교회는 새로운 핍박하에서 타협하지 않고 완전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나누어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음.

물론 일부 핍박을 견디지 못한 가정교회는 삼자교회로 등록할 것이다.

려우퉁수목사(刘同苏)
중국의 혁명가가정에서 태어나고 북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중국사회과학원의 법학연구학자로 있었다. 1991 년 미국포드기금회의 요청으로 예일대에 입학하여 법학연구를 하다가 은퇴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를 영접하였음. 그 후 예일대 신학과에 입하하여 졸업하고 지금까지목회를 하고 있음. 려우퉁수목사님은 현재 중국도시가정교회를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교회의 "모스크바 대학"—CHISTA 에 관한 비전

동방 복음화의 "안디옥", 중국 복음화의 "모스크바"

동방복음화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안디옥교회가 헬라-로마문명의 복음화에 있어서의 역할과 같습니다. 안디옥교회는 헬라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안디옥을 거쳐 복음은 로마로 갔고 최종적으로 로마제국을 복음화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유대화의 복음은 헬라-로마의 겉옷을 입게 되었으며, 몇 세기의 역사를 거쳐 헬라-로마문화를 새롭게 단장하여 최종적으로 현대서구문명의 찬란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동방복음화에서의 "안디옥"입니다. 2000 년 동안 서구에서 오래 머물렀던 복음은 오늘날 한국에서 동방화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로지 동방복음화의 시작이지 동방복음화의 완성은 아닙니다. 만약 복음이 동방문명의 중심지인 동방의 "로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동방문명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한국의 복음적 사명은 완성되지 못한것입니다. 한국의 복음화는 한국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복음화는 모든 동방을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복음적 사명은 바로 자신의 간증으로 동방문명에 불을 붙이는것입니다. 전체적인 동방문명에 대한 복음화가 없다면 한국의 복음화도 단지 피었다 진 꽃에 불과합니다. 한국복음화의 지속적인 동력은 바로 전체적인 동방문명을 새롭게 하는 데서 옵니다. 한국복음화는 동방의 희망이며 동방복음화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로마를 얻었다는 것은 제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동방의 복지(腹地)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중국에 생명훈련기지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를 찾기 위해 세계각국을 고찰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다른 나라가 비교할 수 없는 차상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국교회는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교회는 성숙되고 완비되었지만 선교적 열정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때문에 오로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의 체험이 없이는 어떠한 훈련도 헛된 것입니다. 성숙되고 완비한 교회야말로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훈련하는 전제입니다. 전면적인 교회생활은 반듯이 사회와의 관계가 포함됩니다. 이미 초보적으로 복음화된 한국 문화속에서 훈련 받은 자는 더 전면적이고 더 현실적인 복음체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청춘의 광채를 내 뿜는 첫 열매이며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열정과 동력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중국과의 지리적 관계는 다른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로 두 시간이면 중국의 모든 중요한 도시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기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유리한 조건입니다.

세번째, 비이민국가. 서구의 일부 나라에서도 본국에 입국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자국민을 위한것입니다. 한국은 비이민국으로서 한국에서 훈련 받은 사람은 반듯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훈련 받고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중국복음화 운동에서의 직접적인 축복이 됩니다.

현재 한국의 중국복음화에서의 의미는 마치 구 소련이 초기 중국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의의와도 같았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당무, 군대, 정부계통이 잘 갖추어진 소련은 해외에서 초기 중국공산주의 운동 형성의 최대 건설적 역량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훈련적으로 보았을 때 프랑스 독일도 중국초기 공산주의 운동을 위해 주은래 등 소수의 리더를 배출하였지만 소련은 중국을 위해 두 세대의 훌륭한 리더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왕명, 뷔구, 려우뷔청, 예쩬영, 양상곤, 려우야러우, 장쩌민, 리펑 그리고 서구에서 소련으로 간 주덕, 등소평, 리푸춘, 린표우등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비교방식으로 보았을 때 오늘날 중국교회 리더십훈련에서의 북미와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스타 – 세가지 힘으로 형성된 삼겹줄

하나님은 세가지 서로 다른 부분에서 차이스타를 위한 중대한 역사적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번째, 중국도시가정교회의 지난 십년 동안의 궐기는 점차적으로 중국 복음화의 주도적 역량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의 비슷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인과 공상계층을 중심으로한 가정교회의 궐기는 한국유학생복음화운동을 위한 일꾼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훈련 받은 일꾼들이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섬길 수 있는 최상의 사역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두번째, 지난 몇십년 동안 북미를 중심으로 한 중국인유학생 복음운동은 변화기에 들어섰습니다. 유명한 강사에만 의존한 전도집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에서 자란 유학생들의 수요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해외유학생운동은 새로운 형식과 중심을 찾고 있었는데 저희들에게 코스타가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코스타의 경험을 빌어 차이스타는 새로운 형식의 전도집회 및 수련회를 통하여 해외 중국유학생의 복음운동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번째, 한국에서의 중국유학생의 급속한 증가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중국인유학생

복음화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한국교회의 경험과 자원은 차이스타의 미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이스타의 의미: (1) 중국교회는 두가지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화로 말미암아 생긴 복음의 큰 파도, 두번째는 교회가 주류 사회에 진입하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성숙된 한국교회에서 교회생활을 경험하고 한국도시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경험한 중국유학생은 중국교회의 이런 두가지 도전을 잘 이겨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2) 코스타의 경험에서 빌린 차이스타의 창조적인 새로운 형식의 전도집회와 수련회는 전반적인 해외중국유학생의 복음운동을 축복할것입니다. (3) 지속적으로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에 열정을 불러 일으켜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것입니다.

구체적인 건의: (1) 한국교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차이스타의 가장 큰 자원입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차이스타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한국교회가 중국유학생들로 하여금 전반적인 교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된것입니다. 실제적인 교회 체험이 없이는 차이스타의 복음과 훈련은 헛된 것입니다. (2) 중국교회는 중국본토의 도시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차이스타의 주요 목적은 중국복음화 운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중국도시가정교회의 리더들이 훈련을 받으면 중국복음화 운동의 전통을 접할 수 있으며 중국교회의 현실과 발전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 한국교회의 훈련을 받으면서 중국교회의 훈련으로 중국교회의 大公教義를 받아들이면 돌아가서 중국교회를 더욱 잘 섬길 수 있습니다. (3) 차이스타는 중국인 신학생연합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신학생은 중국인유학생을 목양하는 주도적 역량입니다. 차이스타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한 유학생은 또한 각 교회의 後備力量 입니다. 이 때문에 차이스타와 중국인신학생연합회의 연합은 중국인유학생 복음화 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4) 초기 차이스리더십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종 : 劉同蘇

中國教會的“莫斯科大學”——關於 CHISTA 的異像

郭牧師以及 KOSTA 諸位同工，金明日牧師，廉牧師與 CHISTA 的諸位同工：

此次在首爾與 KOSTA 和 CHISTA 的領袖會面，並參加 CHISTA 的佈道與培靈活動，領受了不少感動，特與 KOSTA 與 CHISTA 的領袖（包括金明日牧師）分享本人關於在韓華人事工以及 CHISTA 的異像。

東方福音化的“安提阿”，中國福音化的“莫斯科”

韓國在東方福音化裏面的地位恰似安提阿在希臘-羅馬文明福音化中的地位。安提阿的教會是福音希臘化的開端；經由安提阿，福音來到羅馬，最終翻轉了整個羅馬帝國；在安提阿，原本猶太人化的福音開始穿上希臘-羅馬的外衣，經過幾個世紀的歷史，更新的整個希臘-羅馬文明，最後結出現代西方文明的璀璨之果。韓國就是東方福音化的“安提阿”。過去兩千年在西方長住的福音，今天在韓國開始了東方化的歷程。但是，韓國僅僅是東方福音化的開始，卻不是東方福音化的完成。如果不能使福音深入到東方的“羅馬”並最終更新整個東方文明，韓國的福音使命就沒有完成。韓國的福音化不是爲了韓國，韓國的福音化是爲了東方。韓國的福音使命就是以自身的見證點燃整個東方文明。一個沒有結果的開端，就不是真正的開端。沒有整個東方文明的福音化，韓國的福音化也將是曇花一現。韓國福音運動的持續動力來自福音對整個東方文明的更新。韓國福音化是東方的希望，東方福音化是韓國的未來。

得到了羅馬，就得到了帝國；翻轉了中國，就顛倒了東方的腹地。本人考察了世界各地可能為中國提供生命培訓基地的國家與地區，發現上帝為韓國準備了無與倫比的優勢地位。韓國的優勢有三：（1）韓國的教會成熟完備卻仍然沒有喪失宣教的熱情。教會是基督的身體，從而，只有在教會裏面，基督的生命纔可能現實地展開。沒有教會生活的體驗，任何培訓都是空洞的。成熟而完備的教會是真實地培訓基督生命的前提。全面的教會生活必須包括與社會的關係；在已經初步福音化的韓國文化裏面，被培訓者可以獲得更全面更現實的福音體驗。過度的成熟會抑制外展的動力，從而，一個過渡成熟的教會很可能是一個缺乏培訓欲望的教會。韓國教會洋溢著青春光彩的初熟，恰恰孕育著培育他人的熱情與衝力。（2）接近中國的地緣優勢。兩個小時的航程就可以達到中國的所有重要城市，這是所以其他任何具有基督教傳統的國家所不具有的優勢。（3）非移民國家。有些國家也有向來自其它民族的人群傳福音或進行培訓的事工，但是，這些事工的目的是面向未來可能定居於本國的人群。由於韓國不是一個移民國家，在韓國的培訓的人群最終會返回中國，從而，在韓的中國人培訓將成爲中國福音運動的直接祝福。目前韓國對於中國福音運動的意義，非常類似蘇聯對於早期中國共產主義運動的意義。由於地緣的接近而且自身具有完善的黨務，軍隊和政府系統，蘇聯成了中國境外對早期中國共產主義運動的最大建設力量。單就培訓而言，也許法國和德國為中國共產主義運動提供了諸如周恩來等少數幾位重要領袖，可是，蘇聯卻為該運動培訓了兩代領袖裏面的衆多傑出分子，王明，博古，劉伯承，葉劍英，楊尚昆，劉亞樓，江澤民，李鵬，鄒家華，還不用説從西歐轉而前往蘇聯的朱德，鄧小平，李富春，在蘇聯體驗

過生活的林彪。若作比較，從上述歷史裏面，不難看出北美與韓國在今天中國培訓中的身影。

CHISTA——三股力量凝成的繩子

上帝從完全不同的方面為 CHISTA 準備了重大的歷史機遇。（1）中國城市家庭教會在過去十年裏面崛起並且逐漸成爲現今中國福音運動的主導力量。由於社會文化背景的類同，以知識分子和工商階層為主體的城市家庭教會的崛起，不僅為在韓中國學生福音運動提供了培訓者，也被培訓者回國服侍的最佳去處。（2）過去以北美為中心的海外中國留學生福音運動，正面臨著換代的危機。以往僅僅依靠著名講員的佈道已經不能滿足後現代留學生的需要。海外中國留學生運動正在尋找新的形式與中心。借鑑 KOSTA 的經驗，CHISTA 可能憑藉新的佈道形式而成爲海外中國留學生福音運動的新中心。（3）由於在韓中國留學生的急劇增加，韓國教會開始關注針對中國留學生的福音運動。韓國教會所具有的經驗與資源將成爲 CHISTA 未來發展的重要支柱。

CHISTA 的意義：（1）中國教會面前面對著兩大挑戰：一是都市化帶來的福音浪潮，二是教會進入主流社會時不得不進行自我定型。在成型韓國教會經歷過教會生活並且在韓國都市文化有過福音體驗的中國留學生，將有助於中國教會回應上述兩個挑戰。（2）在借鑑 KOSTA 經驗的基礎上，CHISTA 創造的新型佈道形式將祝福整個海外中國留學生的福音運動。（3）持續地招喚韓國教會對中國事工的熱情，並成爲韓國教會祝福中國福音運動的管道。

具體建議：（1）保持與韓國教會的緊密關係。韓國教會是 CHISTA 的最大資源；這裡還不是說韓國教會可以爲 CHISTA 提供經驗借鑑或給予財政支持，而是成熟的韓國教會是中國留學生體驗完備教會生活的場所。沒有實際的教會體驗，CHISTA 的福音與培訓都會是空洞的。（2）在中國教會方面，要以中國本土的城市家庭教會為主導。CHISTA 的首要目的畢竟是為中國福音運動準備未來的力量。接受城市家庭教會領袖的培訓，可以接觸主導中國福音運動的教會傳統，真正了解中國教會的實情與走向，前行接受中國教會的大公教義，從而，在回國以後能夠正確地服侍中國教會。（3）一定要與中國神學生聯誼會建立一體化的實質關係。在韓的中國神學生是中國留學生的實際教導與牧養力量，而且 CHISTA 帶領信主與牧養的留學生也是留學生隊伍的後備力量。爲此，兩者的配搭將成爲在韓中國留學生福音運動發展的關鍵之一。（4）初期 CHISTA 的領袖要保持穩定。特別提議廉牧師應當推遲回國兩至三年。目前廉牧師在 CHISTA 的作用遠超過其在國內事工的角色。

再次感謝郭牧師與韓國牧師與同工的接待，為能夠與 SHISTA 的同工共同服侍而感謝上帝，也感謝金牧師的聯絡促成了我們彼此同工的機會。願上帝祝福 CHISTA 的事工。

主僕：劉同蘇

대중국 사역에 대한 소고

말씀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8-2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사역 배경

2008년 부터 온누리교회가 변화중의 중국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것을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 ACTS29의 비전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비전에 의해 변화 중의 중국교회를 섬김으로써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선교적 동역자까지 나아가는 비전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시범지역을 선택하였는데 선택한 곳은 온주 지역이었다. 온주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가 발전하고 개방적이며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데다, 중국 전역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한국선교사가 비교적 적고 한국선교사의 영향권에 있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경과 상해와 같은 하이 클라스 단계의 도시 교회도 아니지만 산동과 하남성 같은 완전 농촌교회도 아니어서 이 지역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면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도 내려 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내용	보조 설명
2008-2014년	시범기간	온누리 교회 내용과 사역방식이 중국에 맞는지 테스트 하는 기간
2015-2030년	성장기간	중국교회를 실제로 질적으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기간
2030-	열매 기간	선교적 동반자로 함께 가는 기간

1. 지금까지 해온 사역

1) 큐티 보급
   - 중국에서 생명의 삶 출판
   - 각 교회에 큐티 강의를 통한 큐티 보급
   - 최고 5만권까지 보급
2) 비타민 집회에 중국목회자 초청
   - 온누리 교회 교회론 목회철학, 큐티,일대일 등 온누리 교회 사역소개
3) 중국 교회 방문지원
   - 아웃리치팀과 상해 두란노를 통한 큐티, 일대일, 경배와 찬양 보급
4) 선교대회 참여
   - 중국교회에서 진행한 선교대회로 강사 파견과 함께 선교협력도 도모

2. 지금까지 해온 사역에 대한 평가

긍정적인 부분

1) 중국교회와 충분한 신뢰관계 형성
2) 온누리 교회의 교회론과 목회철학 그리고 큐티 일대일 등 내용들이 중국교회의 적성과 필요에 맞다는 것이 충분히 검증됨
3) 우리의 사역 방법과 절차도 검증 받음
   - 관계 형성, 교류, 사역 지원, 선교적 동반자

부정적인 부분

1) 중국사역에 대한 융합 선교가 부족하다. 교회적 전체적 기획과 그림이 없다.
2) 사역의 지속성이 부족하다.
3) 중국어 예배와 함께 함이 부족하다. 때문에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

3. 중국교회의 현황

1) 변화기를 겪는 중국교회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동안 중국교회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도 급격한 변화기를 겪고 있다. 주로 세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첫째, 전통가정교화에서 도시교회로,
   둘째,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서 공개 집회로,
   셋째, 집회식 목회에서 목양식 목회로 전환하고 있다.

2) 중국교회의 부흥
   (1) 70-90년대. 농촌교회의 부흥
   (2) 2000-현재. 도시신흥교회의 부흥, 2011년 북경 망대교회(김천명목사)에 대한 핍박은 중국 도시가정교회의 완전 부상을 상징한다.
   이 두 시기를 거쳐 중국교회는 크나큰 성장을 가져왔으며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양적 성장에 치우치고 있다.

3) 지속되는 핍박
   - 겉으로는 개방되었지만 내부로 여전히 자유가 없는 중국
   - 2011년 북경, 상해에 대표적 가정교회에 대한 대대적 핍박
   - 2014년 절강성 삼자교회를 중심으로한 십자가 철거, 현재까지 1400여개 십자가 철거

4. 중국교회의 필요

그 동안 양적 성장을 해온 중국교회는 더 이상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1) 목회자의 성장
   - 목회 비전, 목회 소양, 설교, 양육능력의 향상
   - 중국 내 목회자의 멘토 부족

2) 교회 체질개선
   - 집회식에서 목양식으로 전환
   - 교회론과 목회 철학 확립

- 양육 시스템 구축
- 중국 내 건강한 모델교회를 세워 지역교회에 실제적 방향 제시

3) 선교중국으로의 성장
- 선교중국이 되기 위해 교회성장이 필요하며 선교적 교회로 이끌어야 할 선교적 경험이 있는 인도자와 동역자가 필요함
- 선교 교육, 선교기관을 세우고 운영, 선교 동원, 선교 훈련

5. 한국교회의 역할

1) 한국교회의 역할

8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수교 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중국 선교를 진행해왔다. 진행한 주요 사역은 전도, 그리고 교회 설립, 신학교 설립, 그리고 중국교회를 동원하여 선교사역을 진행. 중국교회에 대한 한국 선교사의 역할은 그야말로 중요했었다.(2012년부터 중국정부는 한국선교사에대한 대대적인 추방이 시작함)

중국교회의 현황과 필요를 통해 본 결과 한국 교회는 중국 선교에 대하여 새로운 트랜드 전환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트랜드가 바로 CHURCH PLANTING 이다.
즉 건강한 교회가 중국교회를 도와 중국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야 말로 현재 중국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며 또한 한국교회가 가장 해야 할 또한 잘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오직 이 사역을 통하여 한중 교회가 선교적 동역자로 성장할 수 있으며, 함께 세계 선교의 주자로 달릴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3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진행한 한국선교사에 대한 추방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중국선교에 대한 새로운 트랜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선교시대를 원하고 계신다.

때문에 첫번째 단계는 CHURCH PLANTING이고
두번째 단계는 선교적 동역자로서 함께 땅 끝까지 선교를 하는 것이다.

6. 온누리 교회의 역할과 사역방향

온누리 교회는 지난 30년동안 한국교회에 변화의 원동력으로 사역해 왔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회로, 미국교회와 영국 교회의 최신의 것을 가져다 온누리 교회라는 모판에서 실험을 거쳐 두란노 바이블칼리지를 통하여 전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쳐 왔다. 이제는 온누리 교회가 한국을 넘어 중국교회와 아세아 기타 나라의 교회에 영향을 줄 시기가 다가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온누리 교회에 허락하신 융합적 선교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회가 교회를 섬겨 성장하고 아세아 여러 나라의 교회를 일으켜 함께 선교적 동역자로 나아가는 것이 온누리 교회의 향후 30년 중국 선교사역의 큰 소명이며 트랜드라고 생각한다.

1) 사역 대상
- 교회 연합체 중심의 사역 (중국은 교단이 없지만 교회 연합체는 많다.
  매 연합체마다 몇 십개 내지 몇 백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지난 5년동안 비타민C집회와 큐티 사역을 통하여 관계를 형성한 교회단체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한다.
- 모델교회를 세워주기
  각 연합체마다에 모델교회를 선정하여 단체마다 하나 내지 두 개의 모델 교회를 세워준다.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섬겨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그 교회가 그 연합체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한다.

- 가정교회 뿐만 아니라 삼자 교회도 섬긴다 (종교국이나 양회중심이 아닌 지역교회에서 정말 복음적인 신실한 교회)

2) 사역 절차

(1) 연합체 총 담당자와 리더십 그룹의 요청을 받은 연합체를 선정한다.
총 리더그룹이 움직여야 효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

(2) 사역의 시작은 교회론, 목회비전, 목회철학의 확립부터 시작한다.
최종적으로 선교적 동반자로 가기 위해 목회비전에서 선교적 목회비전을 공유해야 교회가 성장한 후 선교적 동반자로 갈 수 있다.

(3) 교회에 목회적 구조와 틀을 짜 준다.
전도 → 교제 → 양육 →사역 →파송
이처럼 교회에 있어야 하고 갖추어야 할 틀과 조직을 짜 준다.

(4) 양육시스템을 세팅해 준다.
중국교회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 양육 시스템이다. 새 신자가 들어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까지 양육시스템을 짜 주고 세팅을 도와 주어야 한다.

(5) 성숙할 때까지 동행한다.
양육시스템을 짜 주고 최소 3 년동안은 매 단계마다 세팅해 주고 점검해 주고 함께 가 준다. 3 년 후 기본 세팅을 마치고 열매가 나와야 한다. 보통 많은 사역에 있어서 인내심이 부족하다. 사실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필요한 것은 동행이다. 함께 가 주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를 상대로 '일대일'의 동행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3 년을 지나도 기본세팅이 되지 않는 교회는 포기해야 한다. 가망성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3) 사역 사례

2014 년부터 온주 웨칭지역을 중심으로 두 그룹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양육프로그램은 부록에 첨부)

	대상교회	참석교회 및 인원	시작 시간
그룹 1	온주웨칭려우스총회	5 교회 80 여명	2014 년 1 월 부터
	5 교회에서 새신자반부터 시작된 기본 양육과정이 세팅되었고, 일대일 큐티 등 기본 양유기 세팅되었다. 그리고 단기선교를 가기 시작하였다.		
그룹 2	웨칭지역타연합체	5 교회 20 명	2014 년 1 월 부터
	세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 제도로 가기 시작하였고, 교회에 새신자반부터 시작된 기본 양육과정이 세팅되었으며, 일대일, 큐티 등 기본 양육이 세팅되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양육과정을 세팅하고 있다.		
그룹 3	온주 싱원리교회	1 교회 60 명	2015 년 1 월 부터
	싱원리교회는 온주시에서 1500 여명이 되는 큰 가정교회이다. 싱원리교회는 일년 365 일 새벽기도회, 전교인 큐티가 세팅되었으며, 2015 년 일년 동안 핵심리더에 대한 양육훈련을 거쳐, 2016 년 부터 전 교인을 상대로 5 년 양육시스템을 세팅하기로 결정하고 세팅하고 있다.		

7. 구체적 사역 방법

여기에는 두 파트로 나누려고 한다. 한 파트는 한국인 목회자와 사역팀 및 공동체를 동원하는 사역과 온누리교회 내부에 있는 각 외국어 예배를 통한 방법으로 나누려고 한다.

한국인 목회자와 사역팀

1) 우선 우리가 중국교회에게 줄 수 있는 3 년 내지 5 년의 양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료를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2) 강사 동원
   온누리 교회 내부에는 훌륭한 강사 툴들이 많다. 국사부가 컨트롤 센타 역할을 하여 교회내부의 자원을 동원한다.
3) 가는 사역
   교회 시스템과 양육 시스템을 세팅하는데 있어서 주로 중국 교회로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한다. 현장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강의하고, 점검을 진행한다.
4) 오는 사역
   교회 목회자에 대한 훈련은 두 가지다. 가는 방법이 있고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개설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특히 목회자에 대한 강의를 많이 열어야 하고, 강해설교, 목회학, 예배, 찬양, 주일학교 등 내용도 한국에서 비타민집회를 통해 각 사역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선교훈련을 요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1 개월짜리 단기 선교사 훈련을 진행하면 된다.

외국어 예배를 통한 사역(사례로 중국어예배)

온누리교회 내부에서 많은 외국어 예배가 있다.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일본어 예배, 그리고 온누리 미션에 12 개 언어권의 예배가 있다.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언어권 예배마다 그 나라의 로컬 목회자들이 있다. 외국어 예배는 온누리 교회가 해외 선교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이고 자원이며 동력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어 예배에 대해 존재론적 의미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그 예배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목회자들과 협력하여 그 대상 나라로 선교하는데 까지는 아직 너무 미흡하다.

1) 외국어예배 차세대 목회자 양성의 목회사관학교
   보통 외국 신학생들이 M.Div 를 마치면 한국 신학생과 달리 교회 생활이 짧거나 전인적인 교회에서 자라지 못햇기 때문에 바로 목회 현장에 투입 시 사역능력이 너무나 미숙하다. 졸업하고 적어도 2 년내지 3 년의 목회 현장에서의 실습을 받으면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는 가장 훌륭한 모판이 될 수 있다.
   이 사역 사례로 중국어 예배는 전도사들을 키우고 있으며 이미 사역 훈련을 마친 포주봉 전도사가 TP 훈련을 받고 선교 파송을 받아 중국으로 교회 개척하러 돌아갔습니다. 중국어예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첨부파일에 넣겠습니다. 이처럼 미션에서 사역하는 신학생을 온누리 교회의 교회론과 목회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목회 훈련을 받게 하면 온누리와 함께 ACTS29 비전을 소유한 훌륭한 선교적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중국어예배 뿐만 아니라 전 온누리미션예배에서 실행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2) 파송

목회훈련을 받고 돌아갈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선교사 훈련 혹은 단기 선교사 훈련을 받게 한다. 그리하여 비록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파송을 한다. 그리고 3 년 생활비 지원을 해 준다. 개척초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3 년만 지원하면 자립할 수 있다. 3 년 약정으로 모든 지원을 끊는다.

3) 사역 지원

본부에서는 파송한 목회자에 대하여 멘토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사역지원을 하면서 기도로 중보한다. 그리고 지역 별로 그들을 모아 일년에 한번씩 목회 사관학교를 진행한다.

4) 학생 사역

한국에는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와 있다.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부흥시켜 자기 나라와 세계선교사로 나아가게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차이스타 (CHISTA-chinese students all nations)입니다.

이렇게 각부서와 각 팀이 융합선교를 진행하면 폭발적인 선교적 효과와 열매가 맺히리라고 믿는다.

중국어예배 역파송 선교를 위한 차세대 목회자 양성 프로젝트

<비전>

1. 비전 :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를 차세대 목회자 양성 센터로 세우고 ACTS29 목회비전을 소유한 건강한 목회자를 목회자로 양성하여 중국으로 역파송하여 중국 현지에 건전한 교회를 설립하고 설립한 교회들이 연합하여 선교회를 설립하여 중국교회의 부흥 및 온누리 교회의 세계선교에 기여토록 한다.

2. 역파송 사역 방향 및 목표:

주요 사역	주요 내용
1. 중국 교회의 차세대 지도자 양성	1-1. 중국 신학생들의 훈련의 장(교회개척 준비과정) 1-2. 중국에서 온 신자 유학생들의 체계적 육성으로 귀국 후 가정교회들의 중간 리더들로서 건강한 성장에 기여토록 함
2. 건강한 현지교회 설립을 통한 중국교회들의 부흥지원	2-1. 귀국하는 전도사 중심의 건강한 도시교회 개척 지원(한국에서 전도된 유학생들의 귀국 후 신앙생활 지속연결) 2-2. 인근 중국의 가정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 전파 (선교지향적 교회 비전, 전도, 교제, 양육, 섬김, 파송이 있는 온전한 교회 모델을 제시함)
3. ACTS29 선교의 일익 담당	3-1. 중국 서부의 이슬람지역과 서남부의 소수민족 지역에 중국인 TIM 선교사 파송 3-2.한국-중국 동.중부의 개척교회-서북지역의 유기적 3 각 Network 을 통한 선교단체 및 베이스 구축 3-3. 단기선교사 및 아웃리치를 통한 연결점 구축 지속
4. 사역 단계별 목표	4-1. 첫 단계로 2020 년 까지 중국 열개 도시에 도시 가정교회 개척 4-2. 두번째 단계로 2030 년까지 모든 성소재지 도시에 교회 개척 4-3. 2019 년까지 중국 서부 위그로 지역에 선교사

	파송 4-4. 2018 년 부터 현지 교회 연합하여 선교회 건립

3. 역파송 진행 원칙

1) 원칙

(1) 파송을 받는 전도사는 반드시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 부부라면 적어도 한쪽은 중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2) 파송 대상자는 온누리 교회 중국어예배 출신이여야 하며, 중국어 예배에서 2 년 이상의 목회 훈련을 받아야 한다.

(3) 남자 목회자는 교회 개척 혹은 선교사, 여자 목회자는 개척한 교회 부교역자 혹은 선교사

(4) 파송 대상자는 목회 비전, 목회 철학, 목회 방식에 있어서 온누리교회와 함께 해야 한다.

(5) 교회 개척자는 반드시 온누리 교회 이천 선교의 선교 훈련을 받고 파송받는다.

(6) 파송 받고 5 년을 지원해 준다. 원칙적으로 1 가정당 매월 인민폐 5000 원을 지원해 준다. 지원은 5 년을 기준으로 하고 5 년 내에 자립을 해야 한다. 5 년이 지나면 모든 재정적 지원을 끝는다.

(7) 자립할 때까지 양육 지원을 해 준다.

(8) 세워진 현지 교회는 반드시 연합하여 세워질 선교회에 가입해야 하며 함께 선교사역을 진행한다.

2) 중국 교회의 차세대 지도자 양성

(1) 차세대 목회자 양성: 중국인 신학생을 중심으로 도시 가정교회 개척을 위한 목회자 및 서북 이슬람 지역 선교사 요원으로 2 년 이상 육성

(2) 양성 내용

- 목회자 양성함에 있어서 세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

첫째, 온누리화

- 온누리교회의 목회 비전, 목회 철학을 소유하게 함.
  온누리화가 되어야 장차 목회적 선교적 동역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지금 진행하는 내용으로는 하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등 책과 하목사님 동영상및

이재훈목사님 30 주년 집회 말씀 동영상 “위험한교회, 낮아진 교회, 연약한 교회”를 같이 읽고 보고 공부함.

둘째, 목회 소양

- 목회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훈련: 인성, 기도, 말씀 읽기, 큐티, 설교, 대인 관계, 부부간 관계 등
- 평소 공동체 생활 훈련: 토요 아침 회의 전 큐티 나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집중적인 최소 한달 이상의 훈련, 사역 중의 평가를 통해 끊임없이 전도사님들의 목회 소양과 인성에 대해 지도하고 코치함.

셋째, 목회 기능

- 목회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때 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훈련함: 전도, 새가족, 양육, 심방, 찬양팀, 성가대, 공동체, 선교등
- 최소 3 년의 시간을 통하여 모든 부서를 경험하게 하고 운영을 해보게 함: 토요일 아침 및 방학기간의 집중 성경공부를 통하여 큐티, 일대일로 시작하여 최소 5 년의 양육의 컨텐츠를 소유하게 함. 끊임없는 실습과 브리핑을 통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성장하게 함.

3) 건강한 현지교회 설립을 통한 중국교회들의 부흥지원 :

(1) 건강한 도시교회 개척: 귀국하는 학생들의 믿음 생활의 지속을 위한 건강한 가정 교회의 필요성 충족을 위해 온누리 교회 중국어 예배 출신 전도사들로 하여금 귀국 후 도시교회 개척을 추진 중임(2020 년까지 10 개 지역 도시 가정 교회 설립 목표).

① 2015 년 3 월 성도에 교회 개척:

- 담당 교역자 : 포주봉목사 (합신에서 신학, 온누리 교회에서 6 년 사역)
- 교회 이름: 청두 산지교회
- 교인 수: 120 여명

② 2015 년 9 월 광저우에 교회 개척:

- 담당 교역자: 차이성옌전도사 (서울중국인 신학교에서 신학, 온누리에서 3 년 사역)
- 교회 이름: 화성 교회
- 교인 수: 100 명

③ 2016 년 10 월 상해에 교회 개척:

- 담당 교역자: 니쿤 목사 & 서단단 전도사 부부(서울중국인신학교와 아세아나 연합신학교에서 신학, 온누리에서 5 년 사역)
- 교회 이름: 상해 부흥교회
- 교인 수: 100 명

④ 2017 년 11 월 충칭에 개회 개척:

- 담당 교역자: 이양권 목사
- 1 년동안의 적응과 전도를 통하여 2018 년 10 월에 개회 오픈할 예정

4. 향후 사역 계획

1) 훈련중인 교역자:

장빈 전도사 (한족, M.Div 이미졸업, 2019 년 파송 예정)
숭위헝전도사 (한족, M.Div 3 학년, 2020 년 파송 예정)
권세일전도사 (한국 M.Div 3 학년, 2019 년 파송 예정, 선교사 후보생)
오명도전도사 (한족, M.Div 2 학년, 2021 년 파송 예정)
주하세전도사 (한족, M.Div 2 학년, 2020 년 파송 예정)

* 2016 년 부터 매년 두명씩 학생들이 헌신하여 신대원으로 입학하고 있음. 현재 예배에서 헌신하여 신학교 1 학년 다니는 학생 두 명이 2019 년 1 월 학기부터 사역자로 추가될 예정임

2) 앞으로 3 년 내(2019 년)로 중국서부 혹은 서남부 소수민족 지역에 선교사 파송 예정

3) 선교의 3 각 Network 구축:

온누리 교회의 중국어 예배를 모판으로 중국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양육 후 중국으로 파송하여 일부 목회자들은 도시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선교사로 헌신한 일부 목회자와 단기선교 학생들은 이슬람이 강한 서부지역에 TIM 으로 파송한 후 세 지역이 하나가 된 유기적 네트워크을 형성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슬람을 향한 선교 베이스로 삼고자 함

2018·온누리선교컨설팅

주제 : 온누리를 넘어서